

AJOUINSIGHT.

봄여름가을겨울

〈아주인사이트〉 2016(4349) 봄호 통권15호

용기는 눈물 속에 있고
도전은 눈빛 속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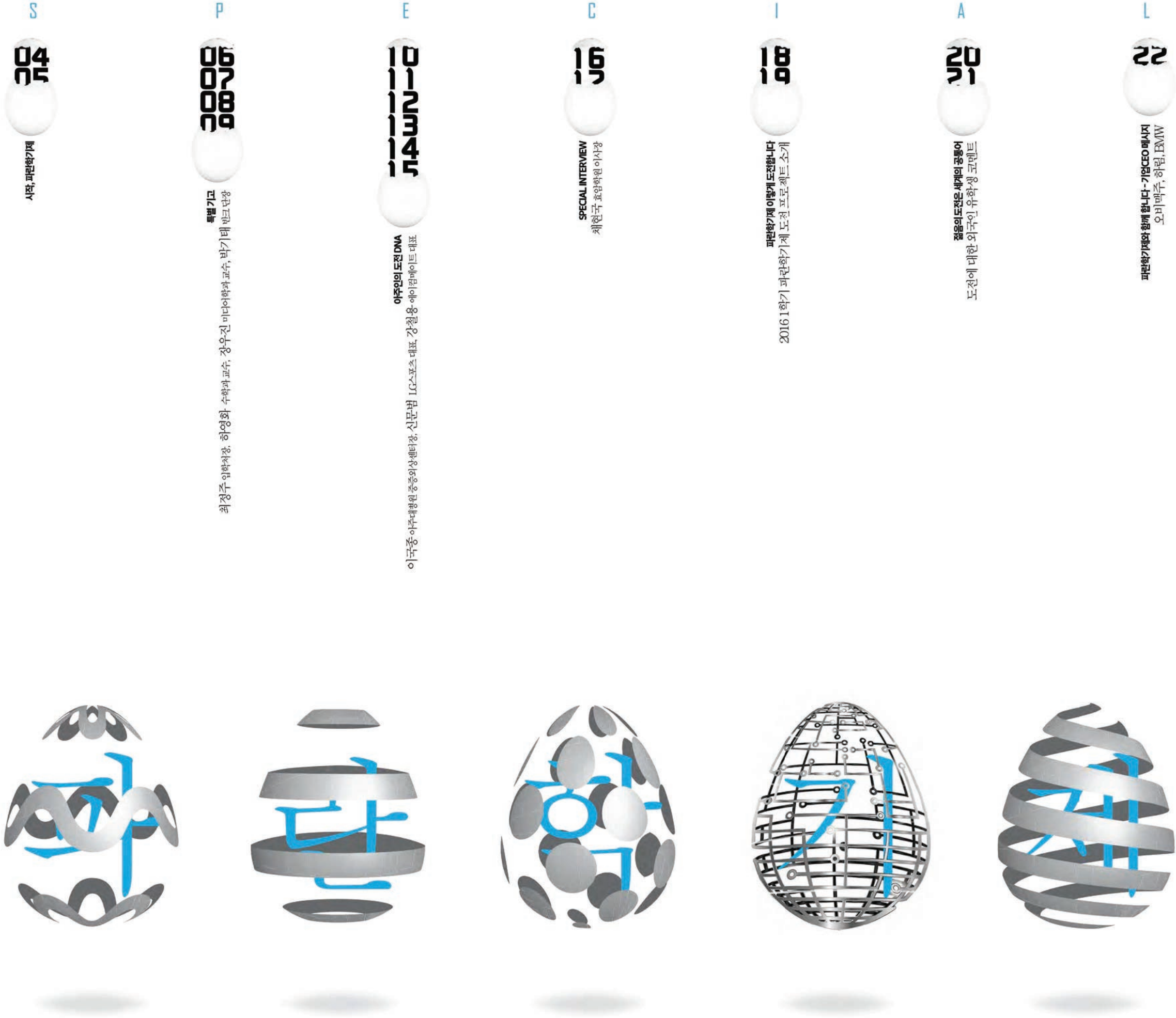


SPECIAL

파란학기제

아주대학교 도전학기 프로그램





a word of editors

너에게 가고 싶어... 이 이상의 목표는 없다. 너와 말하고 싶어... 이 이상의 용건은 없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 이 이상의 쓴 맛은 없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 이상의 원심력은 없다. 사랑과 꿈은 같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미 알고 있다. 용기는 눈물을 머금고 있고, 도전은 그런 이의 눈빛 속에 있음을. 다만 유예하고 있음을, 이제 저지르자, 나의 꿈을 향해! 함께 부딪히자, 더 나은 세상을 향해!

R	23	"AFTER YOU" 2016 여름 글로벌 캠퍼스 모정공고
E	24	총장 특강기고문 김동연
P	26	과배깅은 진짜 〈인류학을 패넌며 작가가 된 오성진〉[미디어학과 교수]
R	27	학문의 생활화, 생활의 학문화 신원대학교의 사회/노동/여성/사회학과 교수
T	28	"AFTER YOU" 겨울 글로벌 캠퍼스 리포트
B	30	해외 동문 매세지 최양호 워싱턴DC 포럼 변호사 (전자공학과 02)
E	31	아주 포게이션 포리미엄 판교테크노밸리 이문진 본부장 인터뷰
C	33	유쾌한 초대석 SW중심대학 사업단 회장
O	34	연구뉴스 뉴스
R	38	DONATION

S

304

시작, 파란학기제

P

30000
9826

특별기고

최정주 입학처장, 하영희 수학과 교수, 장우진 미디어학과 교수, 박기태 벤트 단장

E

14333-10

아주인의 도전 DNA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독의상센터장, 신문범 LCS포즈 대표 강철용 에이컴메이트 대표

C

16

SPECIAL INTERVIEW

채원국 중앙학원 이사장

I

18

파란학기제 이렇게 도전합니다

2016 I학기 파란학기제 도전 프로젝트 소개

A

20

젊음의 도전은 세계의 공용어

도전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 코멘트

L

22

파란학기제와 함께 합니다-기업CEO 메시지

오비맥주, 하림, BMW



시작, 파란학기제!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도전 과제를 설계하고 실천해 학점을 받는 학기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는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아주대의 상징색인 '파란(아주블루)' 색에서 따온 이름으로 알(자신)의 틀을 깬다라는 '파란(破卵)'과 이런 시도를 통해 사회에 신선한 '파란(波瀾)'을 일으키자는 뜻도 담았다.



이러한 모델은 김경식(기계공학 2), 김중백(환경공학 2), 정혜진(문화콘텐츠학 2) 등 아주대생과 아주대 유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누구나... 베일 줄 알면서도
사랑의 서리숲으로 뛰어든다

누구나... 화분의 꽃을 원하면서도
잡초가 되고 싶어한다

누구나... 번듯한
골목길로 들어가

PARAN SEMESTER SPECIAL



길로 달리길 바라면서
고 싶어한다

누구나... 찬란한 인생을 꿈꾸면서도
안개 속으로 가보고 싶어한다

누구나... 아플 줄 알면서도
깨고 싶은 것이 있다

마음 속에, 눈빛 속에-
도전하는 그 순간,
세상은 바뀌기 시작한다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도전 과제를 설계하고 실천해 학점을 받는 학기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는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아주대의 상징색인 '파란(아주블루)'색에서 따온 이름으로 일(자신의 틀)을 깬다라는 파란(破卵)과 이런 시도를 통해 사회에 신선한 파란(波瀾)을 일으키자는 뜻도 담았다.

세상을 바꾸는 '무서운 젊음'을 기대하며



최정주

입학처장/미디어학과 교수

외부에 분노하고 자신에게
좌절하는 그 때가 도전할 때
성장하지 않으면
개인도 조직도 불행

일단 질문부터 하나 해 보자. 상사들이 좋아하는 부하 직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반대로 좋아하지 않는 부하 직원들은? 주관적이지만 성실하다거나, 유연하다거나, 씩씩하다거나, 꼼꼼하다거나 혹은 유능하다거나 하는 특징과 그 반대되는 특징들로 구분 지어질 수 있을 것 같다. 표현이 어찌 되었든지 그 느낌에는 대략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 조직 내 개인 간의 관점을 떠나 조직 자체의 관점에서 쓸만한 인재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반대로 쓸만하지 못한 인재는? 역시 주관적이지만, 비슷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환영 받는 인재들은 어떻게 그런 특징들을 가지게 되었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직업 선택의 기회를 세 번 가졌다. 첫 번째 선택한 직업에서 맡은 역할은 대형 출연연구소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이었고, 두 번째는 벤처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끄는 부서의 책임자였고, 세 번째는 학교에서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교수였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직업을 바꾸는 데는 외부의 압력, 좌절, 갈등 같은 일종의 자기불만이 계기가 되었다. 첫 번째 직업 즉 연구원이 되는 길은, 학생 신분을 벗어나 생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외적인 압력 때문에 선택했다. 호구지책이 해결되는 듯할 때, 뭔가 연구과제를 열심히 해도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은 일종의 좌절감이 계기가 되어 다른 일을 찾게 됐다. 그때 내가 몸담았던 벤처기업은 창업 후 2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안정 궤도에 들어섰다. 그러자, 지금 갖춘 능력으로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더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다시 배움의 장으로 되돌아왔다.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때마다 돈 좀 벌지 않았나, 그래서 행복해지지 않았나라는 질문 많이 받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복해졌다. 그런데 적어도 돈 때문에 행복해진 건 아니다. 두 번째 직장에서 처음 받은 월급은 첫 번째 직장에서 마지막 받았던 월급보다 적었다. 벤처기업이니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였다. 세 번째 직업을 선택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첫 월급 받고서 17일 치만 준 것으로 착각했다. 그 착각이 깨지기까지 딱 한 달이 걸렸다(우스개 소리로 한 이야기이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직장에 여전히 몸담고 있었더라면, 소위 '먹고사니즘'의 문제는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 개인적인 행복으로 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게 무엇이든 거쳐야 할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선택을 하는 것은 역시 어려웠다. 변화를 선택했다가 실패한다면 어떻게 할까, 고민됐고 용기가 부족했다. 용기를 내기까지는 도움이 필요했고, 가족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얻었다. "하고 싶은 건데 해야지" 내게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기에, 그런 나를 지지해주는 말이 나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한 것이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어떤 좋은 조언을 한들,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어찌 쉽게 용기를 낼 수 있겠는가?

일단 용기를 내고 나면 선택은 쉽다. 자발적 선택에 용기가 더해지면 이제 그 뒤의 행동은 '도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하지만, 도전이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오해할까 해서 다시 말하지만,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문제다. 도전을 통해서 성공한 다 해도 도전의 계기가 되었던 문제들이 절대 일거에 해결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길어야 한달 정도 지나면 알아차릴 수 있다. 도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시 변화를 요구하는 외부적인 압력, 내적 불안, 역할 갈등 등의 상황이 해소되거나 작아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기대해서도 안 된다. 도전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단지 변화를 동반하는 개인의 성장이다. '개인의 성장'이란 도전 이후가 도전 이전보다 더 성실하다거나, 더 유연하다거나, 관계의 폭이 더 넓다거나, 업무에 더 꼼꼼하다거나, 혹은 새로운 능력이 생겼다가 등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겠다. 도전을 통해서 성장하면 도전의 계기가 되었던 이전의 갈등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 있다. 혹은 새로운 제3자적인 관점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단지 외부에 대해 분노하고 자신에 대해 좌절하던 개인이, 갈등 상황을 통제하고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다. 나는 이것이 도전을 통해 성장한 개인이 얻는 행복한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파란학기제-아주대학교 도전학기 프로그램은 우리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면 한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두려움 없이 도전해 보라는 용기를 주는 것 말이다. 파란학기를 통해서 도전을 선택한 학생들은 '성공'이 아닌 '성장'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 파란학기 중에 도전의 목적인 바를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파란학기 이후에 목적인 바를 이룰 수도 있다. 아니면 영원히 이룰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파란학기제에 임하면서 성장하는 스스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성장하려면 그 과정에서 동반하는 고통을 넘어서야 한다. 나는 이 고통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 중 자기관련성을 항상 염두에 두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 하는 일이 내 일이다'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다. 좋아하는 일 혹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자기관련성을 높이기 쉽다. 그러다보면 차츰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 성공에 대한 갈망이 높아진다. 성장을 목표로 하면 도전에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 성공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어려움에 빠질 때 '내가 좋아해서 도전했다'는 점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파란학기 참여를 망설였던 학생들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 도전의 계기가 되는 때를 잘 살펴보기 바란다. 지금 무언가를 하고는 있는데 몸은 익숙해져서 편하지만, 마음은 피곤하지만 하고 불만이 지속된다면 지금이 바로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다. 뻔한 이야기지만 지금 하는 일의 난이도와 만족도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일이 많아서 불만족스러운 사람들 보다는, 일의 난이도가 낮아서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한다. 지금 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는 일이 많아져도 힘들지 않다면 지금이 익숙함이라는 틀을 바꿔야 할 때다. 익숙한 일만을 해서는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새로운 일, 그리고 설레는 일에 나서야, 자기 불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장이 정체된 인재를 바라보면 안타깝다. 성장하지 않는 인재는 개인에게도 불행이지만 조직에도 해롭다. 성장하는 인재가 조직을 발전으로 이끌기 때문에 조직으로부터 환영 받는 것이다.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기 내어 도전을 선택하기 바란다. 앞서 말했지만, 도전과 성장은 다른 문제이다. 도전이 무조건 성장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해서, 그래서 자기관련성을 크게 부여할 수만 있다면 도전이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後生可畏, 젊은 사람들은 가히 무섭다. 焉知來者之不如今也, 그들의 장래가 지금만 못하리라고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여 세상을 바꾸는 무서운 젊음의 모습을 기대한다. ㉠

특별기고

SPECIAL CONTRIBUTION

“우리 사회, 그리고 젊은이들의 삶에 비추어 지금 우리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달라. 이것이 원고 청탁 내용의 일부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필요한’ 도전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란 학기 신청 과제들을 보아도, 누군가는 전공 분야의 프로젝트나 취·창업에 도움이 될 만한 도전과제를 제시한 반면, 다른 누군가는 전공이나 진로와는 전혀 무관한 도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누군가는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더욱 큰 규모로 진행하겠다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바쁜 일상 때문에 미루어 왔다가 이제 시작해 보려고 마음먹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와 관심사, 가치관, 욕망이 서로 다른 만큼 학생들이 제시한 도전과제들도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모두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도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종 과제로 채택된 것들도 있고 채택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채택 여부는 그것이 학교라는 제도가 이 프로그램의 과제로 인정할 수 있겠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 것이지, 도전인가 아닌가 또는 그 도전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기성세대의 진부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흔한 선입견 중 하나는 젊은 세대에게 꿈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파란학기 운영위원으로서 학생들의 신청서를 읽고 면담도 진행해 보니 모든 학생에게 꿈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꿈꾸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만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 빈곤, 그리고 자신의(무)능력과 잠재력에 대한 자각 부족이 스스로 타협하게 만들어서, 꿈을 멀리하게 하고, 망각하게 하는 것이겠죠. 질문을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필요한 도전이 무엇인가 아니라’ 왜 도전해야 하는가와 ‘어떻게 해야 도전하게 할 수 있을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흔히 ‘대머리 독수리(bald eagle)’로 번역되는 흰머리수리는 큰 나뭇가지 매우 높은 곳에 동자를 틀니다. 한 쌍이 알을 낳아서 교대로 알을 품는 기간은 35일이죠. 갓 태어난 새끼 수리는 동지에서 약 20주간 양육됩니다. 동지는 지름 1.5~1.8m, 깊이 0.7~1.2m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들어가 누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동지는 플로리다에서 발견됐는데 깊이 6.1m, 폭 2.9m, 무게는 거의 3톤에 육박했다고 하죠. 제 연구실을 세로로 세워놓은 규모와 비슷합니다. 그런 동지 안에서 흰머리수리 새끼의 삶은 얼마나 안락하고 평온하겠습니까.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의 위협이 별로 없습니다. 설령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동지의 크기와 높이로 인해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그뿐입니까. 부모 새들이 열심히 사냥을 해오고 먹이를 새끼 입안에 쏙쏙 넣어 줍니다. 소화 잘 되라고 충분히 이겨서 말이죠. 이대로만 산다면, 흰머리수리 새끼는 먹고 사는 문제와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안락함과 평온함을 내던지고 도전을 감행합니다. 바로 첫 비행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흰머리수리가 새니까 하늘을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첫 비행 실패로 죽는 어린 수리들의 비율이 약 40%라는 것. 오직 60% 정도의 수리만 첫 비행에서 살아남습니다. 도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냥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흔히 수리를 ‘사냥의 달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수리들은 4~5주 동안 동지 주위에서 짧은 비행을 반복하며 깃털을 단련시킵니다. 그해 여름이 수리에게 사냥을 배우기 위해 허락된 유일한 시기입니다. 수개월에 걸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어린 수리는 햇대에 서거나 사냥감을 낚아채기 위해 몸을 구부정하게 하는 기본 기술을 습득합니다. 기술 습득 후에는 어떻게요? 18회 시도 중 1회 정도만 사냥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리 전체의 사냥 성공률이니까, 독립한 첫 해 수리의 사냥 성공률은 그것만도 못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맞이하게 되는 첫 겨울이 수리의 삶에서 가장 위험하고 혹독한 시기입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흰머리수리가 태어난 첫 해에 생존할 확률은 50% 미만이지요(흰머리수리 관련 정보는 다음에서 참고했습니다. <http://www.baldeagleinfo.com/>).

수리는 왜 이런 위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도를 하는 걸까요? 저는 창조주도 아니고 수리도 아니어서, 그 질문에 답하지 못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수리는 비로소 수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도전의 첫 번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수리가 높은 곳에서 몸을 던져보아야 자기가 비행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듯이, 우리도 도전을 해 보아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내 삶의 의미를 채우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등입니다. <룩키>에서, 룩키는 세계 해비급 챔피언과 싸워보고 나서야 자신이 KO패 당하지 않고 15회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와호장룡>에서 강호를 제패하고자 했던 옥교룡은 달관의 경지에 도달한 이무백과 결투하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부끄러운 품성의 소유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

불만은 있되,
꿈이 없는 게
아니다



장우진

미디어학과 교수

을 통해 그녀는 더 이상 강호의 삶을 열망하지 않게 되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도전을 감행해 보아야 나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이란 철저히 개인적인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20대를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비유하곤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편으로는 자신의(잠재)능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성취할 수 있는지 그 해법을 도통 모르기 때문입니다. 20대의 불안과 초조, 두려움은 바로 이러한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곤 합니다. 두려움은 자신감을 빼앗아가고, 자신감 결여와 무지는 내 인생을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가치관에 매몰되게 만듭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도전은 자신의 삶에 필요한 근육과 노하우를 키우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도전의 두 번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흰머리수리는 여러 도전을 통해 근육을 강화시키고, 사냥 기술도 습득해 갑니다. 2m 안팎의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어느 새보다도 더 높은 3000m의 고도를 시속 50km로 날면서 먹잇감을 발견하면 빠른 활강으로 사냥을 하는 흰머리수리의 고고한 삶은, 바로 그러한 술한 성공과 실패로 점철된 긴 훈련 과정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먹잇감 사냥은 고작 18회 중 1회만 성공할 정도인데, 여기서도 약 5.6%라는 성공률 따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실패한 17번의 도전이 1번의 성공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니깐요.

도전은 실천이자 경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자신감을 얻고 그 결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새가 어린 새의 비행 도전을 자극하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먹이를 줄 때 가지 위에 있는 어린 새를 슬쩍 밀치기도 하고, 먹이를 멀리 던져 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자식이 도전을 감행하면 그 놀라운 시력으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응시합니다. 위험에서 구출하기도 하고, 첫 비행에서 성공한 이후에도 동지와 그 근처에 머물게 하면서 당분간은 계속 먹이를 구해다 줍니다. 그리고 사냥하는 법을 지도하죠. 그러면서 점점 더 과감한 도전을 하게 만들죠.

학생들이 도전하게 돕기 위해서 우리 학교가, 기성세대가, 우리 사회가 무엇을 뒷받침해야 할까요? 그 답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만, 그 진지한 출발점이 파란학기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을 이해하는 것,
불가능...

도전 있어야 자신과
삶의 의미 절감 돼





극지의 온도를 5°C나 올리는 펭귄들처럼



복지, '약자 배려'가 아니라
'부의 재분배'로 접근할 때
도전의식도 높아져

광야의 저녁놀,
밤하늘의 별,
떠오르는 해를 다시 느끼자!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취업이다. 그런데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가 너무 어렵다. 성적, 토익, 자격증, 모의면접 등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괜찮은 직장에 취직하는 학생은 일부에 불과하고, 다수는 재수를 하거나 아예 졸업을 연기한다. 오죽하면 취업을 '바늘구멍 통과하기'로 비유하게 되었을까. 한 방송사가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관에 의뢰해 SNS에 올라온 글들 중 청춘, 취업, 젊음과 함께 언급된 말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긍정적인 말들도 있지만 고민, 문제, 포기, 불안, 걱정, 실패,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말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KBS, 2016.2.15). 대학생들은 졸업이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졸업 후에는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으로 생활하며 패배감을 안고 산다. 사람들이 취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전국의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좋은 직장 취직'이 1순위로 나타났다. 2008년과 2010년도 조사에서는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1순위였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한겨레, 2016.2.11).

취업난과 함께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 즉 부의 편중문제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윤추구를 경제활동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 남보다 부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 용인되는 까닭은 경제활동을 통해 새롭게 부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부는 너무 편중되어 있다. 2015년 한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0%가 부 66%를 보유한 반면 하위 50%의 자산은 2%에 불과하다(연합뉴스, 2015.10.29). 부의 편중은 부의 '과도한 축적'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부의 기반인 화폐는 실체가 아니고 단지 자원에 대한 소유 또는 소비 권한에 불과하다. 자원이 무한하다면 화폐를 매개로 하는 부의 창출은 실제로 부의 증대에 해당하겠지만, 자원은 유한하고 미래세대와 공유해야 하기에 과도한 부의 창출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빚을 지우는 길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행복지수가 높다. 사회복지 예산비율도 이 국가들이 가장 높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개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소극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 선진 국가들의 사회복지지는 '부의 재분배'라는 적극적인 단계를 실현하고 있다. 높은 국가경쟁력과 일류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스웨덴에는 150년에 걸쳐 5대째 지속되어 오면서 투명한 경영과 사회공헌으로 존경받고 있는 '발렌베리'라는 재벌가문이 있다. 발렌베리 그룹 기업들의 규모는 스웨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40%에 해당하고, 연간 매출은 스웨덴 GDP의 1/3과 맞먹는 규모다. 수익의 상당 부분이 발렌베리 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되는데 주로 대학, 도서관, 박물관 등의 공공사업에 투자된다. 재단과 그룹 경영자는 급여만 받기 때문에 스웨덴 100대 부자에 아무도 끼지 못한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부자에 대한 신

뢰가 정치인에 대한 신뢰보다 높다.

취업난과 부의 편중보다 더 큰 문제는 어쩌면 지나치게 소비의 존적인 생활 형태일지도 모른다. 기본적으로 소비할 것들이 너무 많아졌고, 또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상품들이 넘쳐나고 있다.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들이 도처에 널려있어 아무도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돈이면 뭐든 가능할 것 같은 문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한다. 그래서 모두들 도시로 몰려들고 돈 버는 일에 가장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 좋은 직장은 모두의 희망이지만 좋은 일자리는 경쟁에서 이긴 소수에게만 주어질 뿐이다. 그런데 보람보다는 돈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번 돈은 소비로 다 나가는 이런 삶의 틀을 모두가 원하는 건 아니다. 단지 날마다 되풀이되는 익숙한 일상이기 때문에 되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소설가 더글러스 케네디의 말이 정곡을 찌른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자신이 진정 원하지 않는 일을 알아채고 그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수동적인 삶의 틀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익숙함에서 벗어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살기 위해 광야로 떠나가든지 이곳에서 경쟁이 아닌 협동하는 삶의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배우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방식들이라서 불편과 불안이 따를 수밖에 없다. 모험은 익숙한 틀을 벗어나 낯설고 불안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힘들고 불편을 마주하는 것이다.

지난 1월, 영국 탐험가 헨리 워슬리가 사망했다. 세계 최초로 중간지원 없이 단독으로 남극탐험에 나서, 71일 동안 1492km를 걸은 그는 남극점을 지나 도착지점까지 불과 48km를 남겨놓고 체력고갈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리고 결국 숨졌다. 그는 80일 동안 먹을 음식과 옷, 텐트 등을 실은 썰매를 끌며 홀로 나아갔다. 극심한 체력저하와 건강악화에도 용기를 잃지 않았지만 끝내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거기에는 후회의 감정은 없고 다만 탐험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짙은 슬픔만이 배어 있었다. 워슬리는 벽간 기슭으로 돌아오기 위해 광야로 갔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용기와 도전정신은 이제 우리 모두의 것으로 돌아왔다.

청년들이 서로 협력하며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공동체들이 최근 여럿 나타나고 있다. 적게 소비하고 함께 소유함으로써 적은 수입으로도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오늘공작소'에는 예술가, 카페 운영자 등 10명이 함께 모여 살고 있다. 이 공동체는 산 임대료로 작업실을 함께 쓰면서 시작되었다. 2012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에 문을 연 '우리마을카페오공'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모토로 하는 협동조합형 커뮤니티 카페다. 재능을 나누면서 소비하는 비용을 최소화한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된 일이다. 20~30대 청년 8명으로 구성된 '블랭크'는 동네(서울 동작구 상도동) 공동체의 과제를 해결하면서 수익을 얻는 소셜벤처다. '동네 안에서만 일을 해도 지속가능한 수익을 거두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블랭크의 목표다. 주민 개개인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되어서, 작은 동네 안에서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한겨레, 2016.1.31).

영하 50°C 이하의 극한 남극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황제펭귄은 서로 최대한 밀착해 천천히 움직이며 안과 밖을 바꾸는 허들링으로 그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다. 밀착한 상태로 모여 있으면 안쪽의 온도는 바깥쪽보다 5°C정도 높아진다. 안쪽에 있던 몸이 따뜻해진 펭귄들은 허들링으로 밖으로 나가고 체온이 떨어진 바깥쪽 펭귄들이 안쪽으로 들어와 다시 체온을 높인다. 극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방법일 터지만, 허들링하고 있는 황제펭귄 무리의 모습은 무척 감동적이다. 그러한 생존전략은 황제펭귄들의 의지와 투자가 만든 지혜의 산물인 듯하다. 황제펭귄은 몸집이 크고 몸놀림이 민첩하지 못해 포식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기에는 자칫 불리하다. 그래서 포식자들이 결코 접근할 수 없는 극한 환경을 그들만의 생존공간으로 택하고 허들링이라는 공동체적 협력방법을 개발해 내지 않았을까?

우울한 세태에도 불구하고 젊음은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다. 순수해지거나 완전해짐으로써 아니고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열정과 자유를 되찾음으로써 그럴 수 있다. 열음에 갇혀서도 스스로 끓어오를 수 있는 열정과, 사방이 벽으로 막혀있는 공간에서도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를 수 있는 자유가 젊음의 특권이다. 그런 젊음이라면 돈이 없어도 맘껏 누릴 수 있는, 바로 우리 삶의 근원인 자연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다. 자연은 우리의 삶이 크고 깊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 수동적이고 습관화된 삶의 방식과 끝없는 경쟁으로 인한 피로 때문에 젊음의 감각은 무뎌져 버렸고 심장 박동은 약해져 있다. 이제 용기를 갖고 광야로 나아가 보자. 거기서 저녁놀과 밤하늘의 별과 새벽 동녘 하늘의 일출을 홀로 맞이하면서 다시금 생명의 느낌을 생생히 느껴보자. 그리고는 돌아와 삶에 지친 다른 젊음들과 함께 우리들만의 허들링을 시도해 보자. **A**

특별기고

SPECIAL CONTRIBUTION

한때의 나를 포함해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대학시절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데가 있다. 바로 스펙이다. 요즘 청년들은 스펙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스펙 경쟁에서 밀려나면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기분을 체험하게 된다. 꿈과 진로를 생각하기에 앞서 일단 취업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취업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월한 스펙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펙(specification). 컴퓨터나 기계의 설명서에 쓰이는 단어가 언제부터가 한국 청년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단어가 됐다. 나 또한 청년 시절에는 스펙을 위해, 스펙을 향해, 스펙을 목적으로 살았다. 내 삶의 경로가 바뀌게 된 시작점은 대학시절 교양과목으로 수강했던 인터넷 활용 과목에서 <반크> 사이트를 만들면서 부터다. 그때 들었던 교양과목이 나의 인생을 바꾸었다. 아주대 파란학기제를 통해 청년들이 대한민국과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도전을 하고, 이 시대의 명작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내가 만든 새로운 스펙의 의미를 공유하고자 한다.

내가 정의한 ‘스펙(Spec)’의 알파벳 에스(S)는 ‘땀(Sweat)’으로 만든 이야기(Story)가 있는 한국 청년을 뜻한다. 대학 시절의 나는 토익 고득점을 목표로 고군분투했다. 어떻게든 토익 고득점을 얻어 여행사에 취업하고, 외국 경험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점수는 오르지 않았다. 매달 토익 점수를 확인하고 실망하기를 반복했다. “박기태 님의 토익 점수는 600점입니다” 토익 점수를 말해 주는 기계음이 암울한 나의 미래를 대변하는 것 같았다. 토익 점수가 낮으니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니 여행사나 무역회사에 입사할 수 없고, 미래는 암담하기만 했다. 결국 나는 토익 고득점을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외국에 나가고 싶은 것처럼 한국에도 외국인이 찾아온다. 특히 서울의 고궁은 외국인들에게 인기다. 나는 덕수궁으로 갔다. 그곳에서 만난 외국인들에게 나를 ‘청년 한국 관광가이드’라고 소개했다.

“저는 대학생이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을 안내해 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귀빈을 위한 관광 가이드를 배치해서 무료로 안내해 주는 것처럼 저는 당신과 같이 한국을 사랑하는 손님들에게 한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만 괜찮다면 오늘 하루 무료로 덕수궁과 서울 인근 관광지를 안내해 주고 싶습니다.”

생전 처음 만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한국을 안내했다. 최선을 다해 진심을 전하고 나서 “감사해요, “한국사람, 친절합니다” 등의 말을 들었을 때의 기쁨이란 물론 영어로 말하는 일은 힘들었다. 하지만 토익 공부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학원에 가고, 좁은 교실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외국인들을 직접 만나 대화한다는 설렘이 나로 하여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었다. 이후 나는 매일 ‘땀’으로 채워진 공부를 했고, 외국인들 앞에서 ‘식은 땀’을 흘렸던 실전 경험들은 오늘날 주저하고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스펙(Spec)’의 알파벳 피(P)는 ‘열정(Passion)’적으로 행진(Progress)하는 청년’을 뜻한다. 나는 해외로 어학연수를 떠나 외국 학생들과 만나보고 싶었다. 하지만 당시 내 스펙으로는 국가 해외 장학생, 기업 해외 봉사자로 선발되기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 활용’이라는 교양수업을 듣게 되면서 초라한 스펙에 대한 원망이 녹기 시작했다. 그저 학점을 따기 위해 수강한 그 수업이 나의 미래를 바꾼 것이다.

‘인터넷 활용’ 수업을 들으며 나는, 인터넷이야말로 세계를 향해 행진할 수 있는 통로라는 생각을 했다. 전 세계 누구와도 만나 대화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어떤 기관과도 연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는 덕수궁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린 경험을 떠올렸다.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 중에도 돈이 없어 한국에 직접 오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그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한국을 알리자. 외국의 대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한국을 안내해 주는 활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나는 그길로 PC방으로 갔다. 전 세계 대학 웹사이트를 검색해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과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저는 한국어를 전공하는 전 세계 대학생들에게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친구와 펜팔교류를 할 수 있다면 당신의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여러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한국을 소개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늦은 밤 PC방에서 1000군데가 넘는 대학교에 편지를 보낸 나의 ‘열정’과 외국의 대학생으로부터 응답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진’했던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이야기 하고 싶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스펙을 얻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어쩌면 자신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느냐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펙에만 얽매이다가는 ‘평생 준비만 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지금 바로 열정을 가지고 행진하라. 나아가는 과정에서 기회는 찾아오고, 실력이 채워지고, 마침내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스펙(Spec)의 알파벳 이(E)는 ‘지구(Earth)’를 가슴에 품고 함께 꿈을 이루는(Empowerment) 청년’을 뜻한다. 내가 늘 한국의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 생각의 틀을 70억의 관점으로 바꾸고, 전지구적으로 꿈을 확장해 나가자는 것이다. 나는 외국인 친구 단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홍보활동이 그 친구의 가족, 학교의 구성원까지 확대되어 70억 세계인에게까지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펜팔 친구에게 정성을 다해 한국을 홍보하면 친구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한국 음식을 사 먹으며 한국 방송을 시청하게 된다. 급기야 자신의 가족과 친구에게 한국을 소개한다. 그렇게 나와 외국인 친구 한 사람의 관계를 통해 70억 세계인이 한국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그 꿈은 곧 실천으로 이어졌다. 나와 비슷한 청년들을 모으기로 마음먹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홍보해 국가 이미지를 변화시켜 보자는 야심찬 꿈을 꾸게 됐다. 이른바 20만 사이버 외교관 양성사업, 피알 코리아(PR KOREA)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20만 명의 사이버외교관이 각자 외국인 친구를 다섯 명씩만 사귀어도 모두 100만명의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을 홍보할 수 있게 된다.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는 이 꿈은 절대 혼자서 이룰 수 없다. ‘다함께’ 여야만 이룰 수 있는 꿈을 꾸었기에 나와 비슷한 꿈을 꾸는 수많은 한국 청년들을 모을 수 있었다. 그들과 꿈을 함께 나누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권한 위임과 권한 부여(Empowerment)의 리더십이 필요했다. 나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사이버 외교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또 ‘한국 홍보대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해외로 나가는 청년들에게 직접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홍보할 수 있는 실력과 자신감을 주고자 노력했다. 그들은 지금도 5대양 6대주 지구촌 곳곳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스펙(Spec)의 알파벳 씨(C)는 ‘자신만의 색깔(Color)’로 대한민국(Corea)을 변화시켜 나가는 청년’을 뜻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색이 있다. 청춘이란 도화지도 마찬가지다. 색깔과 색깔을 합쳐 무한대의 색깔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대 청년들은 자신의 색깔을 무시한 채 남의 색깔만 사용하고 있다. 자신만의 색깔과 개성을 통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컬러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남의 색깔을 부러워하며 상처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색깔을 발견하고 그 색으로 명작을 그리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길 희망한다.

한국사회 요구 스펙
‘준비만 하는 평생’ 아닐지
70억 전 세계인 대상으로
나만의 꿈·색깔을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도전 과제를 설계하고 실천해 학점을 받는 학기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는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아주대의 상징색인 파란(아주블루)색에서 따온 이름으로 일(자신의 틀)을 깬다라는 파란(破卵)과 이런 시도를 통해 사회에 신선한 파란(波瀾)을 일으키자는 뜻도 담았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아주대 의과대학 졸업(1995)
아주대 의학박사(2002)
미국 UC 샌디에이고 외상외과 연수(2003)
영국 로열런던병원 외상센터 연수(2007)
아주대 의대 응급의학교실 교수(2004~)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2010~)



사망서약서 쓰고 헬기낙하훈련까지 하는 의사

- 죽음 직전의 사람 살리는 도전의 20년

2001년, 외과 전문의 이국종은 대량 간 절제에 대한 내용으로 박사 논문을 썼다. 석·박사과정 지도교수가 외상외과를 권했다. 큰 고민 없이 외상외과를 택했다. 수술하는 것도 좋았고, 모교에 남아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도 좋았다.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그가 들어선 외상외과는 의사로서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았다. 하얀 가운과 인자한 미소를 장착하고, 사회적 지위와 부를 누리는 보통 의사의 길에서 그는 점점 멀어졌다. 도로 위, 건설 현장과 공장에서 장기가 파열되고 사지가 절단된 환자들이 밀려들지만 그들을 제대로 치료할 만한 환경은 요원했다. 치료에 나설 인력이 모자란 것은 기본이요, 수술실과 입원실 뿐 아니라 끝도 없는 수술에 들어갈 혈액과 약, 장비 모두가 충분치 않았다. 그나마 수술을 시도할 수 있는 병원에 제때 다다른 환자도 많지 않았다.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환경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하루하루가 이어졌다.

아주인의 도전 DNA①

AJOU
DARING
SPIRIT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의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걸로 유명세를 탔다. 당시 석 선장의 차트에 적힌 증상은 10가지가 넘었고, 2줄이었다.

내가 본 환자들 중에는 4줄짜리 증상들을 가진 환자도 많았다. 내 환자들 중 에어백 있는 외제차를 타는 환자는 딱 1명 있었다. 대개 불법 체류자, 건설 노동자, 공장 노동자 같은 이들이 내 환자다. 공장에서 분당 5000~6000번 돌아가는 볼트가 빠져 배에 박힌 환자가 있었다. 간담과 담도, 췌장이 다 파열 됐다. 내장이 다 깨져 배 밖으로 나오기도 한다. 높은 분들이 아프고 다치면 유명 병원의 실력 있는 의사가 자다가도 뛰어나온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특히 사회취약계층이 갑자기 야밤에 다치면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게 될 확률이 높다. 매년 외상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3만명, 조치가 잘 되었다더라면 죽지 않았을 사람이 1만명에 달하는 게 현실이다.”

내게 환자는 죽느냐, 사느냐 둘 중 하나다 이 도전에서 나는 물러설 수 없다



중증 외상 환자의 수술이 끝난 뒤 수술실 풍경. 이곳에서 환자의 생과사가 결정되기에 의사 이국종은 물러설 수 없다.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차선택이라도 찾아가야 한다.

이 동문은 2005년 대한외상학회지에 ‘중증외상센터 설립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증 외상 환자 이송 및 치료 시스템에 대해 제안한 것. 사고 현장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허브센터(권역별 중증외상센터)로 이송하고,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갖춘 허브센터에서 책임지고 환자의 수술과 진료를 맡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언뜻 아주 기본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의 관심과 지원은 미미했다. 이 동문은 외상외과 의사로서 이러한 현실을 바꿔보고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암 환자들에 대해서는 대형 병원들이 앞 다투어 우치 경쟁을 벌인다. 우리가 하는 중증 외상환자 수술에는 수가를 매길 수가 없다. 이런 환자들은 재수술을 수십 번 받는다. 피를 폭포처럼 쏟는 환자에게는 혈액이 50봉지도 들어간다. 그게 다 병원의 적자가 된다. 많은 외상 전문의들이 사직하거나 전공을 바꾼다. 조직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형 병원은 꽤 규모가 큰 응급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야밤에 응급실을 지키는 당직의는 대부분 주니어 의사다. 긴급한 상황의 중증 외상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다. 좋은 시설에 많은 병상을 갖추고 있음에도 중증 외상 환자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병원도 많다.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데 의료수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돈 되는 환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만만한 일 없는 세상 정면 승부가 답... ‘영웅’ 아닌 치료로 말하는 한 의사일뿐

갓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있다. 생과사를 오가는 환자를 찾아 낯은 헬기에 몸을 싣고, 사망서약서를 쓰고 헬기 레펠 낙하 훈련에도 참여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죽기 때문이다. “시간만 조금 더 있었더라면, 초기 응급조치만 잘 이루어졌더라면 살 수 있었던 많은 환자들이 있다. 서울 북부 지역 아파트 19층에서 떨어진 아이가 있었다. 받아줄 병원이 없다고 해서 헬리콥터로 출동해 데리고 왔다. 아이를 살렸다. 우리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으면, 기적처럼 살아나는 환자들을 본다. 저승으로 향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거다. 내 손 끝에서 생과사가 결정된다.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 놓지 않았다. 한 번 사는 인생 아닌가.” 이국종 동문은 1988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의과대학 1기생이다. 부속병원도 의대 전용 건물도 없던 시절이었지만 그랬기에 추억도 많았다. 기숙사에서 다른 학과 선배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며 우정을 나눴던 시간이었다. 아주대 후배들을 비롯한 젊은이들과 만날 때면 그가 전하는 말이 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한없이 단순해진다. 중증 외상 환자에게는 살아 나가느냐, 죽어 나가느냐 두 가지의 선택지 밖에는 없다. 그 상황에서 의사인 나는 물러설 수가 없다. ‘안되면 말지’라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 쏟아지는 피를 피해서 되겠나.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자를 살릴 길을 찾아갈 뿐이다. 모든 일이 똑같다. 세상은 만만치가 않다. 하지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정면 돌파하라.” ㉠

#울 불 아주대학교병원에 경기도 권역외상센터가 문을 열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 남부지역 중증 외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점 센터를 구축하게 된 것. 중증 외상 환자를 위한 전용 건물로 구축된 권역외상센터에는 중환자실과 수술실, 입원병상이 마련되어 보다 신속한 대응과 집중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나의 인생엔 처음이 많았다

- 남들이안가는 길이더 좋은 도전의 길



1978년, 아주대학 1회 졸업생 신문범이 현대건설에 합격했다. 중동 붐이 불면서 건설사의 주가가 치솟던 때였다. 좀처럼 전공 공부에 취미를 붙이지 못해 학점 평점 2.5를 밀돌던 그의 합격 소식에 모두가 의아해했다. 타이밍이 좋았다.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할 이공계 인재가 턱없이 부족할 때였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죽기살기로 매달렸다.

“재수하려고 학원 등록까지 마쳤을 때, 신생 대학 아주의 발전 가능성을 눈여겨 본 아버지의 추천으로 입학 결정했다. 어문이나 인문 계열과 적성이 맞았지만, 향후 전망을 보고 이공계 학과에 진학했다. 졸업 무렵 중동 붐이 불었다. 현대건설에서 전공 성적이 아닌 영어시험과 면접으로 이공계 졸업자를 뽑겠다고 나섰다.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했다.” 중동 현장에 파견되어 3년6개월을 근무했다. 현장을 뛰며 여러 사람과 호흡하는 일이 적성에 맞았다. 8년 만에 금성사로 자리를 옮겼다. 전자제품 수출이 활발해지며 영어 능통한 세일즈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때였다. 마케팅 부서에 들어가면서 날개를 달았다. 기계공학에 대한 소양이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 제조 인력과 커뮤니케이션이 수월했다.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일 보다는 새로운 일을 좋아하는 성격과도 잘 맞았다.

신 동문은 이후 30년 가까이 LG전자에서 일하면서 아프리카와 중동, 인도와 중국 시장을 누볐다. 직장 생활의 절반을 해외에서 보냈다. 험한 지역에서 주로 일했기에 풍토병에 걸리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고비도 많았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 특히 사람의 마음을 얻겠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일했다.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섰고 ‘조금은 손해 보고 살자’는 자세로 임했다. 성과는 저절로 따라왔다. 그의 술선수범 리더십에 직원들이 부응한 결과였다.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라는 말이 있다.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야 한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만 누가 ‘우위에 있는가’의 싸움이다. 자신의 장점을 잘 보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된다. 기업과 사회는 다양한 사람이 수많은 일을 하며 모여 사는 협력의 사슬이다. 이왕이면 좋아하는 일에 도전하고, 즐기면서 사는 게 좋지 않나. 직원들도 모두 각자가 타고난 자질이 다르다. 그 장점을 인정하고 지원한다. 리더인 내가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가능한 일이다. 직원들을 질책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뿐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제때 보고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손실을 키우는 것”

신문범 동문은 '제1회'와 인연이 깊다. 신설 중학교에 입학해 첫 번째 졸업생이 됐고 고등학교는 제4회로 졸업했다. 아주대학교의 첫 번째 졸업생이기도 하다. 선배로서의 책임감이 오늘날의 그를 만들었다(사진 제일 오른쪽이 신문범 동문).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각자 자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가 같은 것은 나누는 마음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아주인의 도전 DNA②

AJOU
DARING
SPIRIT

신문범

LG스포츠 대표이사

아주대 기계공학과 졸업(1977)
현대건설 입사(1978)
금성사 입사(1986)
LG전자 두바이 지사장(2001)
LG전자 인도법인장(2008)
LG전자 중국법인장 사장(2013)
LG스포츠 대표이사(2015~)



“아주대학에 다니는 것 자체가 도전이던 시절이었다. 289명이 입학해 89명이 함께 졸업했다. 앞서 간 선배가 없다는 것이 나에게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반드시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부딪히며 걸어왔다. 아주대학과의 만남은 어쩌면 우연을 가장한 운명일지 모르겠다.”
정글과도 같은 직장 생활을 30년 넘게 성공적으로 이어온 그에게 후배 직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원동력’에 대한 것이다. 신 동문의 답변은 이렇다.

“내가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 주어진 여건에 불평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했다. 배울 게 있는 한 떠나지 않는다’라는 철칙도 지켰다. 설사 상사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도 거기서 배울 점이 있다.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봤기에,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비슷한 잘못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평탄한 길 보다는 남들이 싫어하는 길을 가는 게 좋다. 내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은 남의 눈에도 다 보이기 마련이다. 단기성과에 연연하지 말라. 어려운 길을 가면 3년이 더 걸린다고 해도, 지나고서 돌아보면 그 정도는 찰나에 불과하다. 오늘의 성과는 과거 노력의 부산물이다. 당장 만들어 질 수 있는 성과는 없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신 동문은 지난해 말 LG스포츠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LG스포츠에는 프로야구팀 LG트윈스와 프로농구팀 LG세이커스가 속해 있다. 올해 선수단과 함께 한 신년행사에서 신 동문은 ‘우승’ 보다는 ‘명문 구단’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그에게는 늘 ‘상생’이 중요한 화두다.
“함께 하고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경쟁도 결국은 상생이다. 상대방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야구단도 다른 9개의 구단이 있기에 존재한다. 홀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현역에서 물러나면 ‘나눔의 행복’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싶다. 앞으로 75세 정도까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젊은이들과 함께 나누며 지내는 게 나의 남은 도전이다.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경영 소극장’이나 ‘경영 카페’라는 이름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 ‘똥이 쌓이면 냄새가 나고, 뿌리면 거름이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나. 돈도 쌓아두기 보다는 쓰기 위해 버는 것이고 경험과 재능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동안 받은 것들을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강철용

중국 전자상거래 전문기업<에이컴메이트> 대표

아주대 경영학과 졸업(2007)

중국 무역 사업(2007)

에이컴메이트 창업(2008~)



대륙의 '불편한길'로 뛰어들다

- '평생 하고픈 일' 좇아 담대한 도전

2005년, 대학생 강철용은 졸업을 앞두고 중국 쑤저우(蘇州)로 여학연수를 떠났다.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을 준비했지만,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았다. 중국에서 만난 아주대 선배가 시작한 사업에 같이 뛰어들었다. 중국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와 파는 무역사업이었다. 중국에서 인기 있던 해골 팔찌와 전기 자전거, 앤티크 벽시계 등을 들여왔지만 생각만큼 잘 팔리지 않았다. 재고만 떠안고 판매를 접기 일쑤였다. 매달 30만원 정도의 생활비로 버틴 시간이 2년 여, 고단했지만 힘들지만은 않았다.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붙었다.

아주인의 도전 DNA③

AJOU
DARING
SPIRIT

“창업 초기 2~3년은 나를 온전히 쏟아 붓는 시간이었다.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가장 먼저 문 열고 들어가, 제일 늦게 나오는 하루하루가 이어졌다. 늘 잠이 부족했다. 그래도 행복했다. 버티면 버틸수록 중국 시장에 대한 확신이 커져갔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힘이 됐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노력하며 이룬 것에 대한 자신감이었다. 사업을 벌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렸다. 20대 후반 나이에는 쌓기 어려운 경험이었다. 조금 더 해보고 안 되면 취직하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못 할 일이 없다’라는 용기가 절로 솟았다.”

28살, 맨몸으로 뛰어들어 사업은 2008년부터 빛을 보기 시작했다. 한국 옷을 파는 중국 온라인 사이트를 시작했고, 때마침 한류 열풍이 중국 전역을 강타했다. 금융위기가 전세계 경제를 흔들면서 천운도 찾아왔다.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기존 가격 보다 30~40% 싸게 살 수 있게 된 것. 신규 고객이 급속도로 늘었다. 이렇게 시작한 전자상거래 사업은 연간 1700억원 수준의 매출·500명의 임직원을 자랑하는 오늘날의 에이컴메이트(Accommate)가 됐다. 에이컴메이트는 자체 쇼핑몰 운영 이외에도 국내 유명 쇼핑몰의 중국 쇼핑몰 운영 대행, 국내 기업들의 중국 유통전략 수립 등을 맡고 있다. 설립 10년이 채 안되어 중국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들이 줄을 서 찾아올 정도의 노하우와 전략을 갖추게 된 것.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시장이 에이컴메이트의 무대가 됐다.

20대에 도전 없이 물러서면 30대부터 죽어도 못할 일 쌓인다 겁먹지 말라!

유럽·호주 법인 준비 중 미국 나스닥 상장 목표

“우리 회사의 규모는 중국 내 다른 전자상거래 기업들 중에서도 여전히 작은 편이다. 지금은 시장 환경이 아주 빠르게 변한다. 그 어느 회사도 안정기에 접어들기는 어렵다. 우리는 핀테크(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 FinTech)를 비롯한 모바일 환경을 주목하고 있다. 이제 국경 간의 장벽이 전혀 없는 시대다. 미국에서 100달러에 팔던 물건을 한국에 들여와 1000달러에 팔아 이익을 남기는 장사는 이제 불가능하다. 에이컴메이트 유럽과 호주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몇 년 안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강 동문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유명 인사다. 최근 몇 년 새 중국 온라인 시장에 진출을 타진하는 한국 대기업들 대부분이 그와 손을 잡았다. 한국 온라인 시장을 경험한 대기업들이 에이컴메이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중국 소비자와 중국 온라인 시장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다. 에이컴메이트는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온라인 시장의 요구를 완벽하게 맞추는 솔루션을 제공,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돕고 있다. 중국어 전공자도, 전자상거래 전문가도 아닌 강 동문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일군 성취에는 어떤 비결이 있을까.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던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사업가들은 대부분 통역을 두고 일을 했다. 우리의 경우 직접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중국인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게 큰 힘이 됐다. 보통의 한국인들은 중국과 중국 사람들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 젊디젊은 데다가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럴 수도 없었다. 직원들과 많이 대화하고 토론해 의사결정을 진행했다. 진심을 다해 그들과 함께 했고 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에이컴메이트에서 강철용 대표는 ‘Charlie’로 불린다. 직원들 각자의 자리에도 이런 별칭이 하나씩 붙어있다.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 중 하나다.

“나에게 도전이란 자발적 불편함의 선택”이라는 강 동문이 막 사업을 시작하던 무렵 홍콩 도심을 내려다보며 생각해 잠겨 있다. 한 지인은 그에 대해 “소박한 외모 안에 대범함이 깃든 사람”이라고 평했다.



강원도 태백 태생의 강 동문은 농어촌특별전형으로 1999년 아주대에 입학했다. 대학 시절 그는 학교 안 보다 바깥의 여러 활동에 몰두했다. 레스토랑 아르바이트와 광고대행사 인턴십, 공모전 참여 등으로 늘 바빴다.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도 별로 없었다. 가고 싶은 회사나 얻고 싶은 타이틀을 목표로 삼기보다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쫓았다. 그에게는 ‘경영자’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이었다. 그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대학 졸업 후 나는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택했다. 안락한 환경을 추구하는 동료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한 직장을 찾아갈 때였다.

이때 ‘사서 한 고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아직 젊고 지금 실패한다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무너진다 해도 한 번 더 베풀 수 있는 나이다. 물론 재기하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작은 불편함 중 하나에 불과하다. 20대에 도전하지 않고 물러서면, 30대에는 죽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인생은 길고, 앞서 택한 불편이 뒤로 갈수록 더 큰 과실을 가져온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선택지보다 내 마음을 끄는 선택지를 택하라. 너무 겁먹지 마라.”

파란학기제

특집
아주대학교 도전학기 프로그램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도전 과제를 설계하고 실천해 학점을 받는 학기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는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아주대의 상징색인 '파란(아주블루)'색에서 따온 이름으로 일(자신의 틀)을 깬다라는 '파란(破卵)'과 이런 시도를 통해 사회에 신선한 '파란(波瀾)'을 일으키자는 뜻도 담았다.

거대한 틀에서 빠져 나오라



지난 달 수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채현국 선생. 팔순에 전날 '폭음급 음주와 장시간 상경' 여정 후 임에도 한 시간 반가량의 강연 대부분을 잊지 않고 소화해냈다.

채현국 선생은 '자유인'이다. 세속적 욕망에 얽매는 게 싫어 가진 재산을 모두 나누었고, '확실하게 아는 것' 전문가 고정관념이라며 실천 없는 일에 대해 늘 경계하며 살아왔다. 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배낭 하나 짊어지고 전국을 누비는 채 선생을 만나 그동안 걸어온 삶의 여정과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일갈을 들어봤다. 결코 스스로의 성취나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는 법이 없는 선생은 자신에 대해 '그저 뚜벅뚜벅 걸어온 살인'이라며 성공한 사람으로 그럴싸하게 내세우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다.

글 이슬(아주대 브랜드전략실)

아카데미 때도, 공사 시절도 그 시대적 배경이 비슷했다. 두 사람이 아카데미의 분명한 중심이지만, 새로운 지배자와 권력자들이 지배 체제 유지를 교육에 위탁한 거다. 이후 근대 군주들이 정치·군사적 지배권을 잡아가면서 국가는 '체제 유지'가 제1의 목적이 됐다. 여기에 학교와 교육이 봉사해 왔다. 체제일치든, 입헌군주든, 의회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같다. 제국주의자들,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모택동... 다 저마다의 체제 유치가 제1의 목표다. 국가주의의 견고한 틀 속에서 학교와 교육이 얼마나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전 세계가 국가주의라는 원리 속에서 돌아가는데, 어느 곳만 이에 반해서야 견딜 수 없을 거다. 이걸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학교와 교육이, 특히 대학이 인간을 연구하고 사람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이 아닌 실질로서, 얼마나 목표로 삼을 수 있을까? 지식인으로서 교수나 학생들이 국가주의적, 체제유지적 틀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압받고, 짓밟히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사실을 밝히고, 진실을 지켜 온 선배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대학과 지식인이라면 우리를 억누르는 거대한 틀에서 빠져 나올 수 있어야 하지 않나. 루소의 정신을 압축해 실천한 사람이 페스탈로치다. 페스탈로치는 '생활 속 교육은 노동을 중심으로 집약되어야 한다'며 교육 운동가로서 실천적인 삶을 살았다. 실천이 아니면 진실이 아니다.

Q 안다는 건 뭐고, 모른다는 건 뭘까요? 말씀하신 학교와 지식인의 문제와 연계해 어떻게 인식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걸 모두가 알지만 아직 태양계는 뭘 중심으로 돌고 있는지, 어떻게 돌고 있는지는 모른다. 0처럼 우리가 알아채야 하는 바는 '아는 것은 전부 가설'이라는 거다. 인공위성이 올라가서 지구를 찍고 관찰하니까 그 가설이 구체화 되고, 확실해진 것이지, 그전까지는 어차피 추론이며, 가설일 뿐이었다. 이치가 아무리 뚜렷하다 해도 그게 바로 사실이거나 진실은 아닌 것처럼, 모든 연구 성과의 대부분이 가설상태다. 우리에게 '모른다는 것은

지적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도 일반적 공유가 안 되어 있다. '알지 못한다'를 우리가 알뿐이지, '모른다'는 것은 지적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이치에 안 맞는 엉터리 속에 살고 있는 셈이 된다. 예를 들어 n분의 n제곱도 무한대는 분명 아니다. 이런 지적대상이 아닌 '모르는 것'에서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도 제논의 역설을 입증하면 또 자꾸 모순이 발견되곤 해왔잖은가? 2000년 만에 허구임을 입증했는데, 불과 3~400년이 지나자 오증명이었다는 게 증명됐다. 다시 100년도 안되어 또 그 증명이 오증명으로 드러난다. 무한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오류다. 지적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제논의 '유한 속에 무한이 있다'라는 모순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무한대는 결국 유한이다. '유한 속에 계속해서 무한이 있다' 이러면서 미적분법이 무한대를 자꾸 써먹는다. 그렇게 하면 근사해 보이고, 많은 게 풀린다. 이런 식으로 지적 대상이 아닌 것이 자꾸 '써먹어진다'. 우리에게 전달되는 건 '힘 있는 자들이 용납하는 것 뿐'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 속에서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규제하고, 훈련시키고, 길 들여도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들로 '아닌 것'들을 알아내야 한다. 이게 진짜 '아는 것'이다. 쉬운 건 아니지만 모두가 빌빌먹고 하지 않았으니 앞선 분들의 노력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

Q 효암학원(개운중학교·효암고등학교) 이사장으로서 학생들 앞에는 자주 나서는 편인지? 입학·졸업식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입학·졸업식에는 참석하는 편이다. 일단 말은 짧게 하는 게 원칙이다. 올 겨울 효암고 졸업식에서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대학 진학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아주 기뻐하고 올해 아주 오랜만에 서울대 입학생이 없었다. 내 교육철학이 이제 좀 들어맞는 것 같다. 우리 졸업생들이 학교 이름값을 따르다가 아니라 각자 하고 싶은 일에 맞는 학교로 간 것으로 생각한다. 자랑스럽다.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배워야지. 공부 잘 해서 서울대학에 간 아이들은 스스로 '경쟁에 이긴 사람'이라는 환상 속에 산다. 딱한 아이들이다. 자본주의가 만든 엉터리 성적 경쟁에 이긴 것에 불과한데... 국가주의와 자본주의가 그따위 가짜 경쟁에 아이들을 적응하게 만든다.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는 태도를 몸에 익게 하고

무언가에 기대는 순간
통찰력은 날아간다

시키는 대로 잘하는
'임금노예'의 길
차버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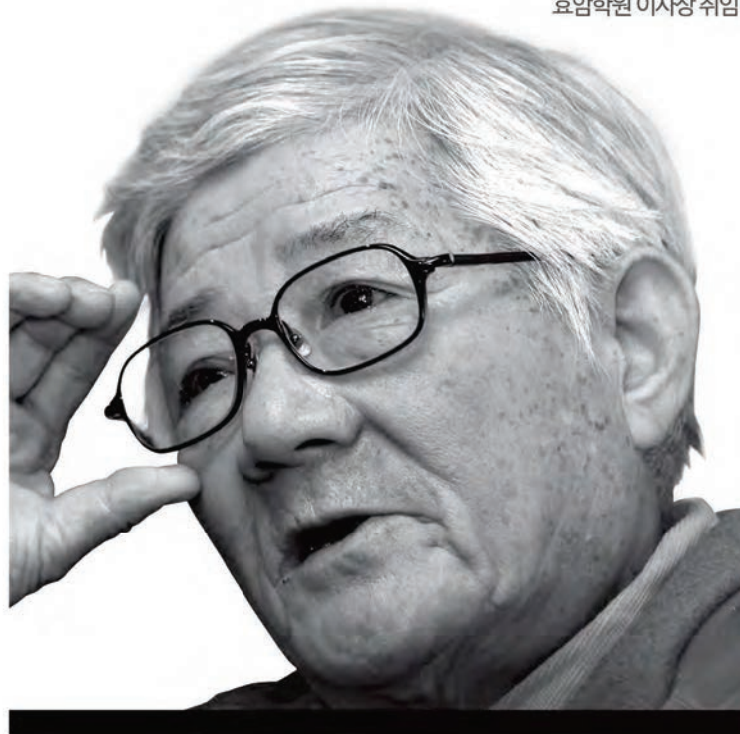
스페셜 인터뷰

SPECIAL
INTERVIEW

학교라는 곳이 '질서'만 가르치지 저항과 반란은 가르치지 않는다.

▲ '도전'이란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도전은 늘 신나는 거다. 결과와 관계없이. 짝사랑하는 것도 도전이다. 차이면 창피할 거 뻔한 데 한다. 스스로 하고 싶은 걸 일을 하고,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일을 해야지 아버지가 '도전해라'라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삶이 도전이니가 가능한 일이고, 자체가 기적이다.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허무감'을 강조한다. 허무란 건 끝이 없다. 그리고 스스로를 너무 뒤달해도 허무해진다. 땀을 흘려 노동을 바탕으로 먹고 살려고 하면 그런 허무는 사라진다. 나는 '시시하게 살라'고 한다. 그래야 행복하지 위인들은 행복하지 않다. 심심하고 여유만만하고 행복한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심심이 짜증이 돈다니 얼마나 문제인가, 돈 많은 놈들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사는가. 그냥 보통 사람으로 긍정적으로 살면 된다. 탄광에서 사람들이 땀 흘리고 사는 걸 보니, 모든 철학적 고민이 해결됐다. 형이상학적인 것은 다 헛소리다. 배가 불러서 하는 헛수작이지. 철학과에 다녀보니 확실히 알겠더라. 아주대 파란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민중이 서로 이웃으로서 묻고 서로 쳐다보며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 유대인들이 '산'의 이름으로 6일 일하고 하루를 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틀을 쉬고 5일을 일하게 된 것은 미국이 자동화 시설을 마련하면서부터다. 자동화 시설을 마련하면서 노동자 저항을 줄이려고 타협한 것이다. 그 이후 독일이 통일되면서 시행해 본 제도가 '4:3' 경제다. 3일 쉬고, 4일을 일하며 경쟁은 줄고 일자리는 늘었다. 사회적 합의 속에서 시행된 제도라 꽤 괜찮게 진행됐다. 우리가 하루를 덜 일하고, 덜 벌고 덜 쓰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자본주의라는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는 경쟁은 불가능할까? 하는 고민들...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

1935
대구 출생
1960
서울대 철학과 졸업
1961
중앙방송(현 KBS) 입사
1962
흥국탄광 합류
1973
흥국탄광 정리
1988
효암학원 이사장 취임

▲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요즘은 세상이 가꾸로다. 새로운 발견이나 발명을 해야 할 성적 좋은 녀석들이

의과대학으로 간다. '임금 노예'가 되는 거다. 처음 종이나 활자가 나왔을 때, 인간이 돈을 벌려고 그걸 만든 적은 없다. 인간의 자유를,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나아간 거지. 그런데 요즘은 '돈벌이'라는 속박 속으로 들어간다. 똑같은 길을 가도, 어떤 삶을 사는가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 달라진다. 남이 훈련시킨 대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뉴스와 신문, 학교와 선생에게 기대는 사람에게 통찰력이라는 걸 기대하면 안 된다. 늘 형형하게 생각해야지. 늘 형형하게 생각하면 늘 불안하다. 불안이 형형한거다. '씩어야 밑알이 크다'고 한다. 위험 속에서 성장하는 거다. 요즘 언론에서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에 대해 보도하면서 '인간의 패배=절망'이라고들 표현한다. 그럼 포크레인이 사람 보다 힘이 센 것도 절망적인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언론이 얄은 생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한다. 상상력과 감성, 또 본능적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이게 인간의 능력이다. 부디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음을 알고, 스스로 생각해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 더 이상 어린 애가 아닌데 왜 스스로 선다는 생각을 못했는가. 자기 책임을 지는 게 자유의 시작이다. 그게 있어야 사회가 너희들을 책임지지. 자기 책임과 자유에 대해 어릴 적부터 알려줘야 한다. 대학생이나 된 녀석들이 아직도 그걸 모른다? 게으른 거다. 어쩌면 그렇게 게을렀냐고, 발길로 확 차고 싶은 지경이다. 초등학교 4학년만 되도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내 책임이지, 세상 탓 부모 탓 하면 안 된다. 발가락부터 머리 꼭대기 까지가 다 내 책임이다. 조금은 날 배짱이 있어야 한다. 살아보니 가난은 영양분이다. 가난하면 오만 상상력이 생기고 마음 속 궁리가 깊어진다. 뚝고 나갈 궁리가 생기는 거다. 그렇기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도 가능했던 거 아니겠나. 본래 '쓴맛이 사는 맛'이다. 조금 덜 치사하고 비겁하고, 남을 갈아뭇개거나 해코지 안하고. 그렇게만 살아도 살만한 인생이다. 세상에 돈 안들이고 할 '거리'도 많아졌다. ▲

‘4.3 경제’ 연구해서
젊음의 세계에
적용해보길

쓴맛이
사는 맛

<아주인사이트> 취재팀과
세 시간이 넘는 사뭇 격정적인
만남 끝에도 얼굴엔
밝은 웃음이 가득했다.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도전 과제를 설계하고 실천해 학점을 받는 학기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는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아주대의 상징색인 '파란(아주블루)'색에서 따온 이름으로 일(자신의 틀)을 깬다라는 '파란(破卵)'과 이런 시도를 통해 사회에 신선한 '파란(波瀾)'을 일으키자는 뜻도 담았다.

국제화 부문

01

한국에서의
일주일

외국인을 위한 한국 여행
블로그 제작

국어국문
박진영, 조은현

02

캄보디아
온라인 의류사업

캄보디아 의류시장
조사 및 취창업

사회
이해인

03

중국에서
한국어 가르치기

중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및
문화 교류

국어국문
김수민

04

캄보디아
의료 에이전트사업

캄보디아 의료시장 조사 및
의약품·의료기기 사업

e비즈
정현석

05

캄보디아
핀테크 스타트업

캄보디아 시장에서 모바일
보험 스타트업 창업

e비즈
임선웅

06

해외 창업 위한
기초 다지기

KOTRA와의 연계 통해
동남아시아 창업 도전

영어영문
김일중

07

해외 기업
체험

해외 근무 체험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경영
김도원

08

무인자동차
차량설계 입문

무인자동차 핵심 기술 학습 후
관련 해외기업 체험

기계
권호준

발명, 취창업 부문

09

3인 인디게임
제작 및 출시

3인 소규모 인디 게임 제작을
통한 수익모델 창출

미디어
윤병준, 주지훈, 원민재

10

금융 예측
프로그램 개발

모의 투자가 가능한 금융 예측
프로그램 개발

산업공학
이의정

11

자작 자동차대회
참가 (Student Formula 250)

차량 설계·제작 후 전국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 참가

기계
윤호준, 서동준, 정의일, 김보선,
최호균, 이우영, 한기천,
김유진



파란학기제 도전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설계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학교는 이를
구체성, 자기주도성, 교육적 의미 등을
기준으로 판단, 필요시 보완·심화하도록 해
부여 학점을 결정합니다. 첫 파란학기에
도전하는 120명의 42개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많은 격려와 기대 바랍니다.

파란학기제 주요 특징

- 학생 당 최대 18학점까지 도전학점으로 이수 가능
- 도전학점을 기본으로 파란학기도전트랙으로 연계
- 파란학기: 도전학점이 9학점 이상인 경우 '파란학기'로 인정
- 도전트랙: 동일 주제로 여러 학기에 걸쳐 12학점 이상 이수 시, '도전트랙'으로 인정
- 도전의 결과 보다는 과정을 우선함. 성공 뿐 아니라 실패의 경험도 성적 부여 시 인정
- 파란학기 운영위원회에서 도전과제 심사, 부여 학점 결정
- 도전과제 밀착지도를 위해 지도교수 선임
- 도전과제 장학금 지원 1학점 당 최대 10만원
- 성적표에 도전과제의 내용과 과정 상세 기술

12

Formula 600
자체 설계 국제대회 참가

국내외 학생 포뮬러 대회 참가를
위한 600cc 차량 설계 및 제작

교동시스템 김시원 기계 정찬식
심기선 권용민 차수현 안요한
박병언 김태훈 배정운
미디어 장원오

13

통화정책을
내손으로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참가

경영 정민기 경제 박현민 진형록
금융공학 유영태

14

파이썬
프로그래밍 개발

컴퓨터 언어 파이썬을 사용한
프로그래밍 개발

e비즈
양낙영 이승욱 권혁준

15

Web App
개발·출시 도전I

최신 웹기술이 반영된
웹앱 개발 및 출시

e비즈
이호찬 김동욱 김상현
노영지 이주원

16

Web App
개발·출시 도전II

최신 웹기술이 반영된
웹앱 개발 및 출시

e비즈
박동현 김민규 김재현
최원담 전지영

17

중고도서 거래
플랫폼 기획

스타트업 '책폴'과 함께 위치기반
중고도서 거래 플랫폼 기획

경영
김재광 문보경 서태훈
최유빈 김이래

18

틸트로더 고정익
드론 제작

기존 드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드론 개발

기계 김경덕 박기태 김현래
김민호 산업공학 김태수

19

PC플랫폼 게임
로보토미 제작

'로보토미' 게임 데모버전
완성 후 출시

국어국문
한은경 이유미

20

3D프린팅 기술
기반 창업

가상현실용 입출력 장치 설계 및
제작, 관련 사업 도전

기계
오복성

21

바이오 촉매
개발

3-하이드록시 프로판산 생산을
위한 바이오촉매 개발

응용화학생명
최운중

스스로 설계하여, 스스로 도전하는 프로젝트들!

PARAN SEMESTER 42 ADVENTURES

22



다중 드론 알고리즘 제안

대상물 추적 감시 및 모니터링을 위한 알고리즘 구현

정보컴퓨터
윤현경

23



위험 감지용 드론 제작

2개 이상의 드론을 활용한 위험 상황 감지 알고리즘 구현

정보컴퓨터
김민국

24



멀티플레이 게임 제작

로그라이크 스타일 PC용 협동 게임 제작

미디어
송형준

25



공유경제 활성화 블로그

블로그를 통해 공통 관심사를 지닌 소비자 간 공유 경제 구축

경영
이진석

26



신차원 코딩교육 콘텐츠 개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제작

미디어
김성진

27



패션 브랜드 제작 및 론칭

패션 브랜드 론칭 - 룩북(Look Book) 준비 및 제작

미디어
김현수

28



아주대 3D 스트리트 뷰 제작

드론 360도 카메라 활용 신개념 스트리트 뷰 제작

정보컴퓨터
현만석

29



루비온레일즈 웹서비스 개발

루비온레일즈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웹서비스 개발

경제 조주연 수목 구셋별 e비즈 이강준

파란학기제에
첫 참여한 학생들의
도전 프로젝트!

42개 팀 120명의 젊은 도전을 소개합니다

사회봉사 부문

30



통섭형 인재로 거듭나기

수원 와이즈 아카데미 참여-인문학·경영학·봉사활동

국어국문 조은현 장희원 산업공학 유태준 이종민

31



수화를 통한 농아인 심리상담

수화를 활용한 농아인 심리상담 및 학습지원

심리 손병진 김진섭

인문·예술 부문

32



프로젝션 맵핑 제작 및 전시

프로젝션 맵핑을 작품화하고 전시 기획 통해 관객과 공유

미디어 김태산 서영수 박현우 공병국 김희수 백수영 임채석 이진혁 정다혜 유정

국제화 부문 발명·취창업 부문 사회봉사 부문 인문·예술 부문 기타

35



남도 답사 프로젝트

남도 지역 답사 후 출판물 제작

정보컴퓨터
홍지현

36



미국 건축물 답사 연구

미국 주요 도시의 건축물을 답사한 뒤 출판물 제작

건축
정진우

37



아주 위대한 고전 읽기

현대 사상에 대한 고전 집중 탐구, 이를 영화 해석에 적용

경영
송해용

기타 부문

40



요리를 통한 세계 문화 교류

요리를 통해 외국인들과 문화·언어 교류, SNS를 통해 확산

경영 이용래 행정 정다혜

41



과학의 요리, 요리의 과학

요리에 대한 공부를 기반으로 식품첨가물 및 추출물의 원리 이해

물리
박성준

42



효율적인 가계부채 상환전략 제안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계부채관리 방안 제안

경영 김경환 김미경 심리 김건호 산업공학 고주희

33



해외 영화제 출품 단편 영화 제작

단편영화 제작 후 해외 영화제 출품 도전

미디어 전영권 강민석 장진혁 전수호 문화콘텐츠 공병호 조영아 정혜민

34



웹드라마 기획·제작

드라마 기획·제작 및 연출, 페이스북 영상 페이지에 활용

미디어 서영수 박수정 이진혁 유정 문화콘텐츠 이강웅 송윤근 지영림 최지우 국어국문 양지훈 정다빈

38



MLB 취재 및 다큐멘터리 제작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한인 선수를 주제로 다큐 제작

금융공학 백진우 미디어 최서운 문화콘텐츠 권성환 사회 임승현

39



20대 주도 뉴미디어

360도 카메라·SNS플랫폼 활용한 대학생 언론 설립

미디어
최서운

파란학기제

아주대학교 도전학기 프로그램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도전 과제를 설계하고 실천해 학점을 받는 학기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는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아주대의 상징색인 '파란(아주블루)'색에서 따온 이름으로 일(자신의 틀)을 깬다라는 '파란(破卵)'과 이런 시도를 통해 사회에 산란한 '파란(波瀾)'을 일으키자는 뜻도 담았다.



CHINA
Liu Yang
Xiangtan University

도전은 자신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의미할 것이다. 도전은 많은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한다. 나에게서는 두 가지의 도전이 있는데, 하나는 한국어이며, 하나는 한국과 중국의 정치 비교이다. 아주에서의 학기 마지막에 이것에 대한 멋진 에세이를 쓸 것이다.



GHANA
Fosuaa Pepertual
아주대 국제대학원 재학

파란학기제는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믿는다. 역량과 믿음이 북돋아 질 것이다. 알성이 도전이지만, 아주대의 많은 재학생들과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에 도전하고 싶어졌다.



U.S.A.
Delaney Cooley
University of Wisconsin Eau Claire

어렵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 그것이 도전이야! 한다. 그것은 합거운 장애물이야! 한다.



FRANCE
Adrien Chevier
ECE Paris

도전은 쉽게 보면 결국 공부다. 파란학기제는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멋진 제도이자 최상의 기회이다.



U.S.A.
Casey Ange
UW-Milwaukee

도전은 유용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치 않은 경력을 계속한다. 도전이란 자신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발견해내는 방법이자, 재미없는 경력을 깨버리는 용기를 주는 것이다.



GEORGIA
Irakli Tskhovrebadze
Caucasus school of business

도전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다른 필요성과 소원, 그리고 믿음이다. 모든 도전은 사람들을 강하고 독립적으로 만든다.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줄 알게 할 것이다. 단 한 번의 인생이다. 나도 아주에서의 4개월을 잊지 못하게 만들도록 도전해야겠다.



DENMARK
Soeren Fage Hedegaard
Aalborg University

자신을 아는 것이 도전이며 이 도전은 항상 좋다.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도전이며, 나도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도전해야겠다.



‘젊음의 세계의
120개 아주대의 젊은



FRANCE
Guille Geoffroy
Ecole supérieure des sciences commerciales d'Angers

나에게 도전은 전체의 반대말이다. 스스로에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학점으로 보상해주는 파란학기제는 매우 적절한 격려책이다. 개인적으로 프랑스와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차이부터 일상적 차이까지 경험과 새로운 지식 한계를 벗어나는 여행 건강장정신을 살아가는 것들도 도전이다. 나에게 멘토링을 통해 건강을 챙기는 것도 도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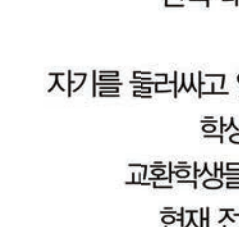
MALAYSIA
Mat Rodzi, Fadhillah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파란학기제는 스스로 행동하기에 좋으며, 그 선택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해 주기까지 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나는 교환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많은 마을들을 방문하여, 마을 어르신들의 농업과 일상에 도움이 되며, 나를 돕는 도전을 할 것이다.



GERMANY
Florian Diener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Trier

당신의 삶은 항상 도전을 필요로 한다. 만일 도전이 없다면 매우 지루해질 것이다. 나에게 도전의 의미는 우선 성정의 한계에 다가서 보는 것이다.



GERMANY
Bieramperl, Christoph Benedikt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Schmalkalden

자신에게 맞서는 것... 그것이 도전이다. 무엇을 좋아하고, 할 수 있는지 알아 가는 것 자체가 멋지다. 나의 학교는 없는 제도지만, 실문과 교수진 Q&A로 그 길을 찾는다. 이때 자신의 질문이 중요하다. 질문은 종종 해야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삶은 공부하는 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대신 원하는 것이 분명해져야 한다. 도전은 좋아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CAMEROON
Ebie Cyril Napa
아주대 국제대학원 재학

다들 단계를 가기 전에 천천히 깊게 생각해 하는 것이 도전이다. 고된 문제와 마주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강해진다. 교실이 제공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파란학기제가 흥미롭다. 매우 혁신적이다. 저절로 열정을 갖게 할 것이다. 하버드 법대가 웹사이트에서 학생들 스스로 커리큘럼을 짜게 한데, 그 이상이었다.



CAMEROON
Abie Nhwuaso Abia
아주대 국제대학원 재학

도전이란 자신이 설정해 놓은 한계다. 그것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파란학기제는 젊음이 스스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는 최고의 수단이 될 것 같다. 경쟁이 표준화 되는 세계에서 이런 도전의 기회와 그에 따른 다양한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나도 세계에서 온 많은 아주대 유학생들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만드는 도전이 하고 싶어졌다.



U.S.A.
Lusine Gevorgyan
Yerevan State Linguistic University

도전은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놀이다. 불가능 한 것 같거나, 특정 목표에 가 닿기는 늘 어렵지만 보인다. 그러나 끝내 새롭고 멋진 자질을 얻거나, 우리가 이미 가진 기술도 반드시 항상 시켜준다. 나의 학교에서도 도전의 종류를 선택하고, 해결하는 그룹이 있다. 자선사업, 토론 클럽, 지적 게임 클럽 등등... 많은 연습과 작업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한다.



GERMANY
Bieramperl, Christoph Benedikt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Schmalkalden

자신에게 맞서는 것... 그것이 도전이다. 무엇을 좋아하고, 할 수 있는지 알아 가는 것 자체가 멋지다. 나의 학교는 없는 제도지만, 실문과 교수진 Q&A로 그 길을 찾는다. 이때 자신의 질문이 중요하다. 질문은 종종 해야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삶은 공부하는 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대신 원하는 것이 분명해져야 한다. 도전은 좋아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한국 대학 교육과 청년 사회에
시작됐다. 파란학기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틀과 세계를 깨고,
학생들에게 응원 메시지가
교환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현재 전 세계 70개국 280여개

GO, CHALLENGE

EXCHANGE STUDENTS' COMMENT

아주에서 도전중인 유학생들이 파란학기제에 도전하는 아주인들에게!



Qin Jing
Chongqing University

하고 싶었지만 아직 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하는 것이 도전이다.



Trenton Ballou
East Tennessee State University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끝내 성공하는 것 그것이 도전일 것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말이다.



Dong Chenxi
Xiangtan University

도전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이다.



Eino Sipinen
Helsinki Metropoli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은 항상 옳다. 동시에 학점까지 인정된다니! 새롭고 멋지다.

도전은 공통어!

별들을 응원합니다!




Buenyumam Ulusaraclar
Nuertingen-Geislingen University

도전이란 언제나 소중한 경험. 하지만 모든 도전이 늘 즐거우려라는 법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운명은 개운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하자.



Caroline Baudon
Nantes University

도전이란 자신이 정해놓은 목표에 가 닿기 위해 자기 자신, 열정, 시간, 에너지를 모두 쏟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부 학생 조직들은 인맥이나 일반적 학생 조직으로 다양한 도전을 시도한다.



Sydney You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도전에는 꾸준한 노력과 동기부여, 그리고 헌신이 요구된다. 파란학기제에 참여하는 아주대학교 학생들에게 '잘' 하고 있다. 그대들의 노력이 결국은 빛을 볼 것이라고 전하고 싶다.



Selin Bürgis
FHNW Basel, Switzerland

도전은 우리를 크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 그러나 때로는 좋지 않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것은 너무 많은 도전에 나선다는 뜻이다. 이것은 삶에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Violla Reininda Hafidz
Universitas Padjadjaran

파란학기제는 하고 싶지 않으며,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하는 데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는 프로그램일 것 같아 매우 유용하다고 본다. 내가 다니던 학교에 정확하게 유사한 프로그램은 없지만 학생들이 호기심에서부터, 관심 있는 특정 수업은 등록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다. 나도 나의 최종 목표에 대한 뚜렷한 초점을 갖고 싶다.



Ngome William Ewane
아주대 국제대학원 재학

도전은 '최고'를 가져다 준다는 자신의 긍정적인 마음이 정해 놓은 것에 대한 내면적 소망이자, 표면적 반응이다. 파란학기제는 창의성과 관심 분야에 대한 교육 과정을 스스로 만든다는 점에서 놀랍다. 학교의 그런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도 졸업 후 본국과 한국, 그리고 넓은 세계에서 온 친구들과의 인연을 일로 확장시켜 가겠다.

E & CHANGE!



Geby Amanda Putri
Universitas Padjadjaran

당신을 니이키게 하는 것 더 많은 것을 하게 하는 것 더 나은 방법으로 하는지를 찾아주는 것...을 한 단어로 말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도전이다. 파란학기제는 무엇보다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는 의미가 셀 것 같다. 학교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활동이 특별히 부정적이라면 않다면, 그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해 본다.



Hau Yin Ting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파란학기제의 도전은 스스로 하는 교외 활동과 또 다른 일상이었다. 도전은 언제나 새로운 자극심을 준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일상, 그것들을 통해 생기는 통찰력, 시간관리, 비판적 사고, 팀워크, 사회성에 의한 실력을 키울 수 있다. 동료들과의 장기적 관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배울 수도 있다. 앞으로 나갔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Louis Phillippe Obele Ayukegba
아주대 국제대학원 재학

대체로 도전은 당신의 직장, 가정, 사회 생활 안에 있으며 거기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에서 생기는 많은 어려움을 파악하고, 극복하는 것이 바로 도전인 것이다. 파란학기제는 매우 유용할 것이다. 잠재력을 찾는 학기일 것이다. 전공 분야의 발전과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취업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확대되었으면 싶다.



Matia fernanda Flores López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Valparaíso

순간을 즐겨라 도전 중의 매 순간들을... 많은 친구들을 만들 수 있으며,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 멋진 기회들을... 나도 한국어를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 파티, 노래, 춤도 함께 즐기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취업이라는 도전을 하고 싶다.

PARAN SEMESTER Partners' CEO Message

아주대학교 파란학기제를 응원합니다!

Daring Mind로 함께 땀시다

“학비를 지원해주세요.”
한 젊은이의 무모한 도전이
글로벌 맥주 기업의 오늘이 되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자름길이 아닌 정도를
걸어온 신념의 기업 오비맥주,
아주대학교 파란학기제와 함께 합니다.

“파란학기제-아주대 도전학기 프로그램의 철학은
우리 브랜드의 철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파란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 여러분께 꿈(Dream)과 사람(People), 문화(Culture)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꿈을 꾸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껴 나가십시오. 우리 오비맥주는
여러분의 'Daring mind'를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운명같은기회’는 보호막 밖에 있습니다

선물 받은 병아리 10마리에게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병아리가 닭이 되고,
마침내 운명이 되었습니다.
안전지대에 머무르지 않고 시련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온 글로벌 농식품 기업 하림,
아주대학교 파란학기제와 함께 합니다.

“계란 껍질이라는 보호막 안에 머물면 계란으로 남을 수밖에 없듯이,
도전과 용기가 없다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도전자입니다. 도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긍정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기회가
보이고, 그래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는 지혜로운 젊은이입니다.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일이 즐겁고 창의력이 나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여
도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리더는 남을 쫓지 않습니다

항공기에서 모터 사이클,
자동차까지 BMW는 이동수단의 일대 혁명을
일으키며 스스로 진화해왔습니다.
전통과 품격을 지키며 위기에서
더 큰 성장을 일궈 온 파란의 기업 BMW,
아주대학교 파란학기제와 함께 합니다.

“1등을 쫓아가는 것은 2등 게임일 뿐입니다.
리더는 남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리더는 무한한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파란학기제를 통해 여러분의 무한한 내재적 가치를
아껴 내기를 바랍니다.
파란학기제가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것으로 믿습니다.
파란학기제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움을 용기로 바꾸는 것이 유쾌한 반란입니다

Oriental Brewery
Company
OB



김도훈
오비맥주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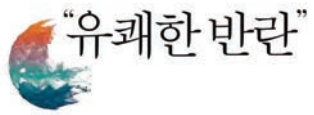
Harim Group



김홍국
하림그룹 대표이사 회장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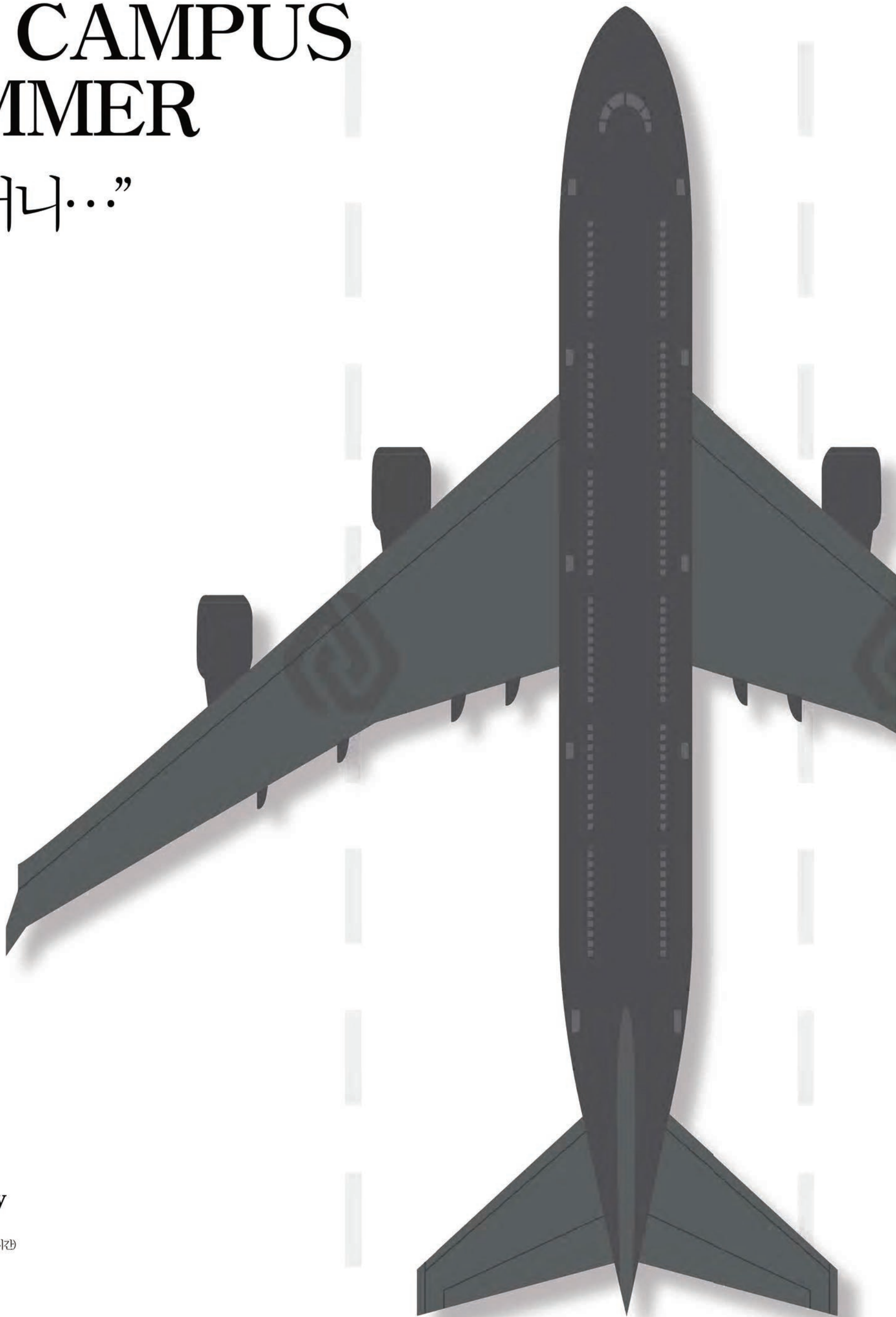


“AFTER YOU”

GLOBAL CAMPUS 2016 SUMMER

“그 친구를 보냈더니...”

모두들 “나부터...” 일 때
 “그 친구부터...”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내 식구만...”에 간혀있을 때,
 “이웃과 함께...”를 실천했습니다
 2015 “AFTER YOU” 글로벌캠퍼스로
 실천한 ‘유쾌한 반란’-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들이 젊음과
 우리 사회, 우리 스스로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더 많은 어려운 친구의 추천과 성원 바랍니다



미시간대학교
 미국 공립대학 4위
 세계 대학 21위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chigan

2016. 7. 11. (월) ~ 8. 5. (금) / 4주
 집중 영어수업 (주20시간) + 현지 대학생 버디와 언어실습 (주8시간)
 수준별 2개반 편성, 교양선택 3학점 부여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현장 학습, 실습과제 수행)
 가계곤란 학생 30명 (일부 타교생 포함) 전액 장학



존스홉킨스대학교
 미국 대학 10위
 세계 대학 11위



Johns Hopkins University

SAIS, Washington D.C.

2016. 7. 11. (월) ~ 8. 5. (금) / 4주
 집중 영어수업 (주15시간) + 현지 대학생 버디와 언어실습
 수준별 2개반 편성, 교양선택 3학점 부여
 국제대학원 (SAIS) 주관 미국문화 및 국제관계 집중교육
 (미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방문)
 학생 20명 반액 장학



워싱턴대학교
 미국 공립대학 16위
 세계 대학 32위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shington

2016. 7. 18. (월) ~ 8. 12. (금) / 4주
 집중 영어수업 (주15시간) 3주 + 자유여행 1주
 외국인 학생들과 수준별 반편성, 교양선택 3학점 부여
 현지 대학생 버디와 언어실습 및 체험학습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주2회, 빌게이츠 재단방문 등)
 가계곤란 학생 30명 (일부 타교생 포함) 전액 장학



상해교통대학교
 중국 대학 7위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2016. 7. 4. (월) ~ 7. 29. (금) / 4주
 집중 중국어수업 (주15시간) + 현지 대학생 버디와 언어 실습 (주15시간)
 수준별 2개반 편성, 교양선택 3학점 부여
 중국 문화 실습 (현지 가정방문, 서예, 연극, 다도 체험)
 가계곤란 학생 20명 (일부 타교생 포함) 전액 장학



북경이공대학교
 중국 대학 30위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2016. 6. 27. (월) ~ 7. 22. (금) / 4주
 집중 중국어수업 (주15시간) + 현지 대학생 버디와 언어 실습
 수준별 반편성, 교양선택 3학점 부여
 중국 문화 공부 및 체험
 가계곤란 학생 20명 (일부 타교생 포함) 전액 장학

물 뜨기

※ 교수회 소식지 <탁류청론>에서 취임 1주년 소회에 대한 원고청탁을 받고 쓴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학교에 온 지 막 1년이 지났습니다. 함께 한 시간이 1년밖에 안 되었지만 학위수여식서 졸업생들을 보니 든든한 마음에 앞서 서운한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학위증을 한명 한명 주면서 혹시 얼굴 아는 졸업생이 제 앞에서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려 했습니다. 다음 날은 신입생 입학식을 했고 며칠 뒤 편입생들도 만났습니다. 새 학생들을 만나며 가슴이 설렘니다. 개강에 맞춰 다시 학교에 돌아올 학생들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각각의 그릇에 담은 학생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겠다는 사명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대학생활 1년 차에 불과하지만, 새 학기를 앞두고 ‘아이런 게 학교에 있는 맛인가’ 하는 주제넘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돌아보니 지난 1년을 저는 무척 즐겁게 지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바를 다하려고 노력했고 일하는 과정에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난 학기부터 저는 학생들과 ‘충장북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제가 한 권씩 책을 정해 신청한 학생들에게 책을 나눠주고 다 읽고는 만나 자유토론하는 모임입니다. 첫 책으로 걸리버 여행기 완역판을 골랐고, 이어 ‘다윗과 골리앗’,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을 선정해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직전 다음 책을 정했는데 신영복 선생의 ‘담론(談論)’이었습니다. 공고를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이 작고하셔서 본의 아니게 선생의 마지막 유고(遺稿) 책을 고른 것이 되었습니다. ‘담론’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파트는 고전에 대한 것입니다. 시경, 주역, 논어, 공자, 맹자 등 동양의 고전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내용 중 주역을 ‘물 뜨는 그릇’으로 비유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닷물을 그릇으로 뜨면 그 그릇에 담긴 물은 바닷물이기는 하지만 바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물은 어차피 그릇으로 뜰 수밖에 없습니다. ‘주역’이 비록 부족하고 작은 그릇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세계를 뜨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걸쳐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신영복, 담론 74쪽)

조금 차원이 다른 비유입니다만, 저는 우리 학교가 당면한 여러 도전과제나 문제, 또는 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할 일들을 바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떠서 옮겨야 할 ‘큰 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 학교의 구성원은 누구냐가 ‘물 뜨는 그릇’이 돼서 물을 떠야 하는 것이지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물을 뜨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제 노력에 우리 구성원들이 많은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때로는 각자가 ‘물 뜨는 그릇’이 돼서 함께 물을 나르기도 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물을 뜬다는 것 자체가 제게 있어 성과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제 ‘물 뜨는 그릇’이 작아 많이 뜨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구성원들이 기꺼이 함께 물을 뜨려고 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학교의 앞날을 위해 아주 좋은 일입니다.

무엇인가를 ‘함께 한다’는 것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좋은 결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교정에서 만나는 푸릇푸릇한 우리 학생들을 보고 가슴 벅차오를 정도로 사명감을 느끼는 것 같은 것들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려는 길에 대해 생각을 같이 하고, 아니 혹시 일부는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서로 이해는 하면서, 또한 식구라는 동지의식을 공유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전 겨울방학을마치면서 전체 교수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고맙게도 많이들 참석해주셨습니다.당초 계획은 본부에서 교수들께알리고 싶은내용들을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저는 그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바꾸자고 했습니다.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쌍방 소통과 토론을 하고 싶어서입니다.저나 본부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의견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도 듣고 싶어서입니다.학기 시작 전에 웃는 얼굴로 만나서로 반가운 인사도 나누고 밀린 이야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입니다.저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어울리고 싶어서입니다.주제 중에는 딱딱하고 골치아픈 내용도 있겠지만 새 학기를 앞두고 잔칫집 같은 분위기로 모임을 가지고 싶어서입니다.그래서가급적 많은 교수들이 참여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언로(言路)를 트는 방향으로 했습니다.중간 쉬는 시간과 워크숍마치고는 차나 와인이라도 한잔 하면서 정담을 나눴으면 했습니다.덕분에 교육대상을 받은 노명우 교수의 지당(慈堂)께 바치는 눈물 어린 헌사(獻辭)도 감동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파란학기에 지도교수로 참여하는 전용호,박미화 교수의 각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만족에까지 미치지 못했지만 첫 시도치고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 고백합니다.우리 학교를 사람맛나는 커뮤니티로 만들었으면 하는 인간적인 바람 외에,학교의 경영을 맡은 CEO로서 제 의도가 숨어 있음을 말입니다.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단기적 효율성에 기초한 성과가 아니라 신뢰와 이해의 바탕 위에서 나오는 지속가능한 결실을 만들고 싶어서입니다.서로가 마음이 통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물을 뜨는’ 아주 커뮤니티를 만들었으면 해서입니다.그런 분위기라야 간디가 이야기하는 7대 사회악 중 ‘인격없는 교육(knowledge without character)’이 아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이런 제 고백을 부디 성과지상주의 발상이라고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로 맺을까 합니다.제가 취임한 후 직원들이 고생 많았습니다.정말입니다.아마 전에 겪어보지 못한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제가 벌이는 일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지고 제 요구 수준이 높아서 힘들었을 겁니다.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묵묵하게 잘 따라줬습니다.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이분들도 저와 함께 각자의 그릇으로 ‘물을 뜨신’ 분들입니다.제 바람은 이렇습니다.힘은 들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일하는 자세도 점점해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계발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조직의 경쟁력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교수들께서도 우리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이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신뢰와 이해(理解)로 뭉친 우리 커뮤니티의 소중한 일원들이니까요.

지난 1년의 소회뿐 아니라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제 각오도 밝혔으면 했는데 어느 정도 앞에서 암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앞으로 열심히 물 뜨겠습니다.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어서 그렇습니다.같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대학교 총장

김 동 연





괴짜 같은 진짜

소녀, 뉴욕을 사로잡다

<in NEW YORK> 펴낸 작가·사업가 된
오심인 미디어학과 10

•어릴 적부터 상상 속의 일을 디자인해 보여주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일-미디어를 통해 뭔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미디어학과에 진학했고 여러 프로젝트를 경험했다. 듣고 싶은 과목을 나 찾아 들었다. 학교에서 마련한 장기 연수 프로그램에 합격해 미국 시카고행 비행기에 올랐

감이 충만했다. 무언가를 경험하고 만들어내기 위한 기회는 저절로 생기거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다. 내가 그곳으로 나를 끌고 가는 수밖에. 겁이 나기도 했지만 이것저것을 재며 망설이는 시간이 더 아까웠다. •뉴욕 곳곳의 사진을 찍기 위해 일반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다. 배우 지망생들을 섭외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 어느 날 메일함을

장에 함께 해주었다.

•책을 낸 뒤, 프리랜서로서 디자인과 문화 기획 등의 일을 하고 있다. 학교로 돌아가는 것? 잘 모르겠다. 다들 대기업, 취업, 스펙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게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각자의 생각과 모습과 취향이 다르듯 자기에게 맞는 길도 나타나고 나와 맞지도 않는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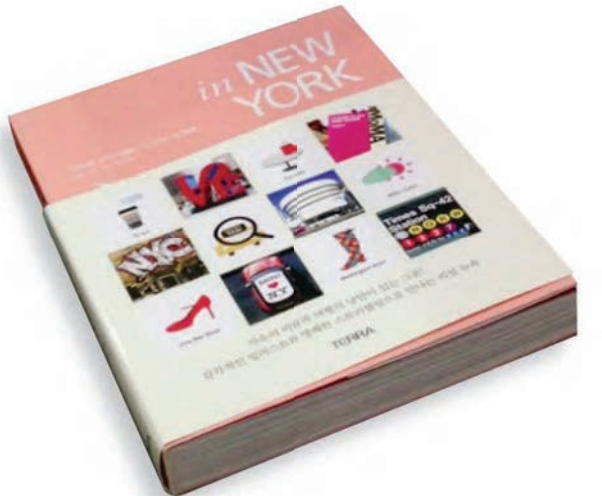


다. 미국행을 앞두고 서점에서 여행서적을 뒤적이면서 어떤 장소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터였다.

•구상하던 일을 실행에 옮겨야겠다고 마음먹고 뉴욕으로 향했다. 뒤죽박죽, 고민과 절망의 시간이 이어졌다. 저렴한 집세에 끌려 옮겨간 동네에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려 머리를 흔들고 중얼거리며 동네를 오고갔다. 하지만 내게는 아직 자신

열었더니, 배우 지망생들이 정성껏 적어 보낸 지원서 500개가 도착해 있었다. 함성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옷가게와 신발가게, 서점과 레스토랑, 카페 섭외에도 직접 나섰다. 어느 날, 장소 섭외가 잘 되지 않아 지쳐 앉아 있던 지하철에서 누군가 다가와 물었다. 왜 의기소침해 있냐고. 카페 섭외가 잘 안되고 있다고 털어놓자, 그는 자기가 잘 아는 단골 카페로 나를 안내해줬다. 기적이란 이런 것이다. 많은 기회와 인연이 나의 여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나에게서는 매 순간이 중요하다. 학교에 이런 저런 사람들이 와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다양한 삶과 도전에 대한 생각을 나눌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 ①



뉴욕의 이모저모를 일러스트와 사진으로 보여준 산개집 가이드북 <in NEW YORK> 기획과 취재, 구성과 편집까지 모든 것이 오심인의 손에서 나왔다. 이를 기점으로 오 동문은 현재 그래픽 작가, 전시 기획자, 사업가로 나섰다.



新 환과고독의 사회

어느 날 왕이 맹자에게 정치가 미땅히 해야 할 바에 대해 물었다. 맹자는 명료하게 대답했다. 정치는 자고로 '세상에 서 가장 불쌍한 네 종류의 사람'을 돌봐야 하는 일이라고. 맹자가 측은하게 여겼던 네 종류의 사람은 이렇다. 먼저 "늙어서 아내가 없는 홀아비"인 환(鰥)이 측은한 사람 중 한 명이다. "늙어서 자아비가 없는 과부"인 과(寡) 또한 불쌍한 사람이다. "아버지가 없는 고아"를 지칭하는 고(孤)와 "늙어서 자식이 없이 홀몸"이 된 독(獨) 역시 정치가 돌봐야 하는 측은한 사람에 속한다. '환·과·고·독'에 해당되는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모두 가족이 없거나 가족 외부의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가족은 참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가족은 아직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굶어죽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다. 맹자는 고아는 위험하기에 불쌍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연로하여 노동 능력을 상실했는데 부양할 가족이 없는 처지 역시, 아버지가 없는 고아만큼이나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가족은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부양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애정을 기울이는 정서적 안전판 구실을 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따뜻하게 들린다. 아내를 잃은 남편이나 남편이 없는 아내는 정서적 안정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맹자의 시대에 환과고독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기에 그들은 특이한 사람이었고 특별한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변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그리고 급진적으로.

가족의 의미 역시 시간이 흐르고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어가고 있다. 마르크스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가족과 관련된 모든 견고한 것들은 이미 녹아내리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족을 둘러싼 환경은 빨리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알던 가족의 종말'이라는 무시무시한 표현이 더 이상 과장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이다.

가족은 더 이상 안정적인 틀이 아니다. 사람들은 점점 늦게 결혼하거나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 1921년 여성의 초혼 연령은 19.5세였고 남자는 18.2세였다. 2010년에 오면 남자는 평균 31.8세, 여자는 28.9세에야 결혼을 한다. 가족이라는 틀은 쉽게 깨지기도 한다. 이혼은 더 이상 특별한 얘기가 아니다. 1990년의 총 혼인건수에 비해 2010년의 총 혼인건수는 오히려 줄었지만, 1990년 4만5694건에 불과했던 총 이혼건수는 2009년 7만2830건으로 늘어났다. 가족이라는 틀 안으로 진입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가족 안에서 다시 가족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맹자의 시대에 과부나 홀아비는 보기 드문 유형이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남편이 없는 아내·아내가 없는 남편은 더 이상 희귀한 존재가 아니다. 남자와 여자의 평균수명의 차이에 의해 여자의 경우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야 하는 기간은 평균 10년에 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연로한 부모도 자식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고, 또한 자식들이 연로한 부모와 동거할 의향도 약해졌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맹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꼽았던 4가지 인간 유형, 즉 환·과·고·독에 해당하는 사람이



학문의 생활화,
생활의 학문화

점차 늘어난다. 바야흐로 환과고독이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매우 보편적인 사례가 되는 '신(新) 환과고독의 사회'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신 환과고독의 사회'는 달리 말하면 같이 밥을 먹는 식구의 단위가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최소 식구사회'이기도 하다. 1980년 한국 사람의 절반 정도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었다. 2인 가구(대부분은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는 5인 이상의 가구의 1/5 정도에 불과했다. 1인 가구는 4.8%에 불과해 사회적인 의미가 없을 정도의 소수였다. 그 이후 나타나는 변화의 방향은 명확하고,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5인 이상의 다인 가구는 2012년 전체 가구 중 7.2%에 불과한 규모로 축소되었다. 반면 1인 가구는 급격히 증가, 1980년 4.3%에서 2012년 무려 25.3%로 늘어났다.

2035년까지의 장기추세를 살펴보면 더욱 극적인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2035년이 되면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의 34.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5년에는 1인 가구가 자녀 없는 부부가구나, 자녀가 있는 부부가구와 같은 핵가족조차 제치고 가장 많은 가족의 형태가 될 것으로 추정될 정도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2010-2035>에 따르면 2010년 부부+자녀가구가 37%, 1인 가구 23.9%, 부부가구 15.4%이지만, 2035년에는 1인 가구가 34.3%, 부부가구가 22.7%, 부부+자녀가구가 20.3%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의 종말'은 판타지에서 현실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은 이렇게 빨리 변화하고 있지만, 가족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가족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우리는 여전히 특정 형태의 가족만이 정상적이고, 정상적이라고 간주되는 가족 내에서만 개인이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은 미래로 달려가고 있지만, 가족에 대한 우리 마음의 관습은 미래가 아니라 아주 먼 과거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절대 버리지 못하는 오래된 마음의 관습 중 하나를 꼽으라면, 사람은 가족 내부에서만 행복하다는 전제다. 멜로드라마에 등장하는 '상상된 가족'의 구성원이란, 가족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지만 어디까지 그 가족은 '상상된 가족'일 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은 그와는 다른 현실이다.

'상상된 가족'은 모두에게 행복을 제공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 모두가 개인에게 행복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어떤 가족은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기도 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 존속살인과 아동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남남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족의 외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많은 이들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환·과·고·독'에 속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최소 식구사회'에서 '신 환과고독'에 속하는 사람들을 누가 돌봐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가족이 사라지고 있다면 '신 환과고독의 사회'에서 사회가 또 다른 미래의 가족이 되어주면 안 될까? 맹자가 2016년 한국 사회에 살고 있었다면, 이런 해법을 내놓았을지도 모른다. [▲]

가족의 종말...더이상 과장아나 상상된가족 vs. 현실의가족, 차이 깨닫자 사회가또다른가족 되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의 종말' 특별기고

노명우 사회학과 교수



Global Alumni Message

WASHINGTON D.C.

급회전해도 괜찮아

미국 Sterne, Kessler, Goldstein & Fox, 특허 변호사
최양호 전자공학과 02학번



로스쿨 졸업식에서 가족과 함께 한 최양호 동문

최양호 동문은 미국 일리노이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제 막 법률가로서의 커리어를 쌓기 시작한 특허 변호사다. 새내기 법조인으로서 미국 워싱턴 D.C.에 입성하기 전까지 그가 걸어온 길은 탄탄대로만은 아니었다.

이주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세계적 명성을 가진 미국 공립대학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학업을 이어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동료들의 재능은 뛰어났고, 나만 뒤처지고 부족하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결국 박사학위를 받겠다는 기존의 계획을 수정했다. 석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한 대기업에 취직했다.

직장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뭔지 모를 갈증은 여전했다.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다시 미국으로 떠났다.

“로스쿨 학생으로서 또다시 유학생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의 생활은 이전과 달랐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며 배우고 익힌 탄탄한 기본기가 특허 변호사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나중에 이렇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느꼈다.”

부모님의 유학으로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낸 최 동문은 한국으로 돌아와 중고교와 대학을 다녔다. 가슴 한편에 해외 생활에 대한 동경을 간직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러던 중 이주대 교환학생에 선발되어 미국 스톤브룩대학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만난 이주대 동료들은 평생의 벗이 되어주고 있다. 세계 무대에서 펼 후배들을 위해 그는 이렇게 조언한다.

“비슷한 목적과 꿈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게 중요하다. 사회인으로서 일하는 것과 유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미국 사회는 냉정하다. 늘 자신감을 가지고 틀려주지 않는 거 없이 시원하게 인정해라. 자신 있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적보다는 칭찬을 더 많이 듣게 된다.”

꿈을 향해 달려온 그에게 이주대학교는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후배들도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주대학교 재학 시절 국제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여름방학 동안 미국 앨라배마로 연수를 다녀왔다. 학교에서 연결해주어 호주의 작은 회사로 인턴십을 다녀올 기회도 있었지만, 별 볼 일 없는 이유로 막판에 포기했다. 아직도 후회로 남는다. 학교에서 마련한 단기 연수나 교환학생, 인턴십이나 봉사활동을 적극 활용하라. 짧은 길던 다른 문화, 다른 나라에 대한 경험을 해 보면 생각의 폭과 깊이가 달라진다.” [▲]



Ajou Location Premium - 산업벨트의 중심 ②

AJOU & PANGYO Techno Valley

아주대와의 산학협력 통해 아시아판 실리콘밸리로

이문선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본부장 인터뷰
판교테크노밸리



판교테크노밸리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는 이문선 본부장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문선 본부장이 아주대 사이트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며 대학과 산업체 간 협력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학은 연구와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기업은 첨단 기술을 상품화하는 첨병으로서 발맞추어 가야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 이에 <AJOUINSIGHT>는 아주대와 발맞추어 갈 인근 주요 기관을 시리즈로 조명하고 있다. 지난 호 CJ블로썬파크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아시아판 실리콘밸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소개한다.

판교테크노밸리는 2005년부터 조성이 시작되어 현재 1000개의 기업, 7만 여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인 기업 클러스터 단지다. 그 중 IT 기업이 64% 비중을 차지하며 바이오·나노기업 역시 다수 입주해 있다. 대표적 입주기업으로는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포스코ICT, 다음카카오, SK케미칼 등이 있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의 이문선 본부장을 만나 봤다.

▲ 판교테크노밸리에는 IT와 바이오 분야 동종 기업들이 대거 모여 있다.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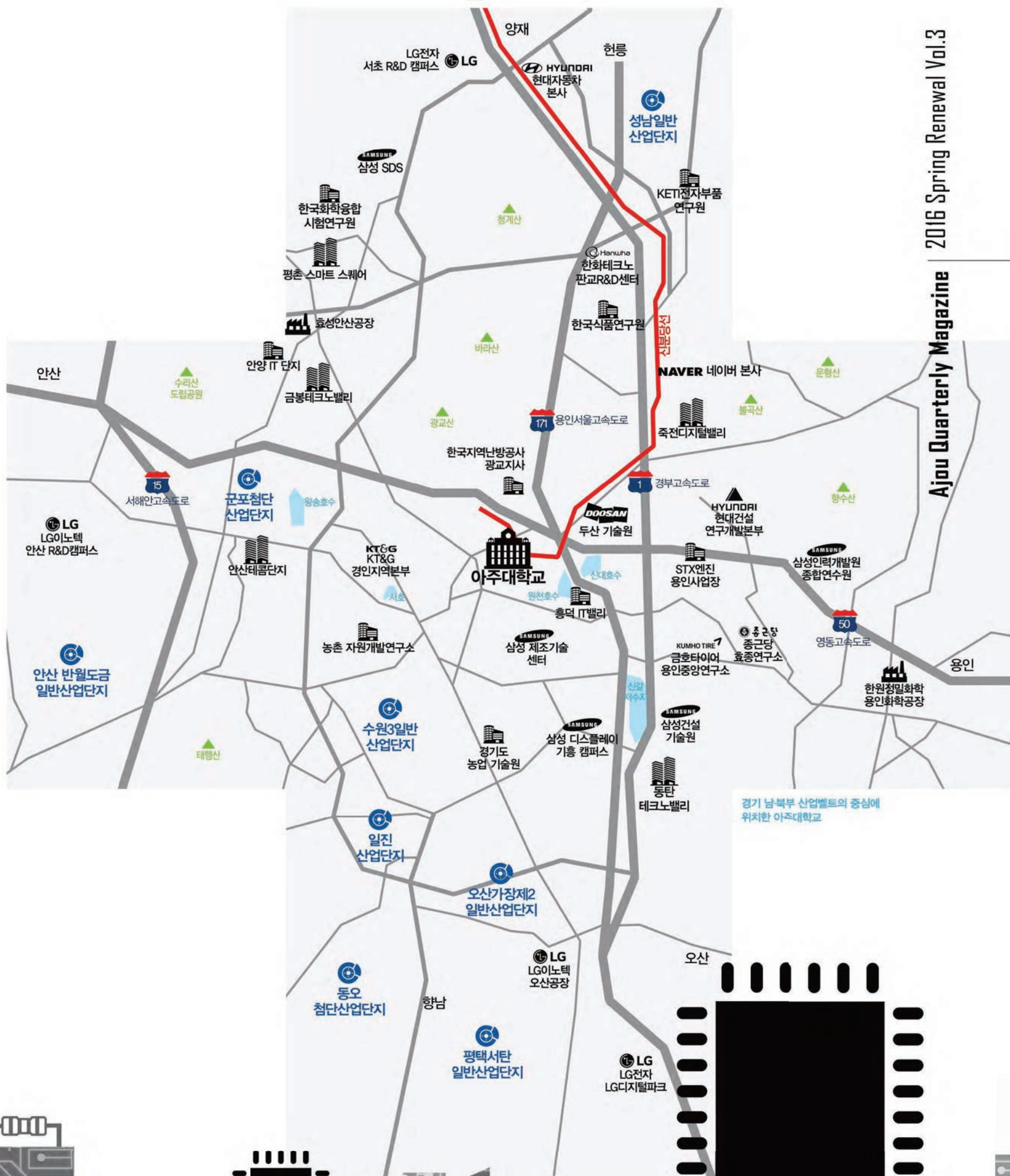
ICT와 바이오, 나노 분야 선도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협력업체와 관련 중소기업들이 함께 들어왔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시너지가 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다행히 지금 입주기업들 사이에 여러 형태의 모임이 만들어져 있고 이러한 모임들이 매개가 되어주고 있다. CEO와 CTO 등 주요 멤버들이 모여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분야를 찾아가기도 한다.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입주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금 입주기업들이 관련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엔젤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런 지원을 기반으로 성공하는 스타트업이 나온다면 기업 상생 생태계 조성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 판교테크노밸리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발전하기 위해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까?

아직 교통 인프라와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하다. 이곳에서 일하는 고급 인력들을 재교육할 수 있는 기반 역시 취약하다. 이 점은 판교테크노밸리와 2km 떨어진 곳에 조성하는 '넥스트(next) 판교'를 통해 보완해가려 한다. 넥스트 판교는 2019년 완공 예정으로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등의 분야에 특화된 기업 클러스터가 될 것이다.

▲ 판교테크노밸리에 필요한 산학연 협력, 그리고 대학들에 바라는 바는?

지식기반 첨단사회에서 앞서가는 기업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업과 대학 간 R&D 협력이 긴밀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대학들과 협력이 잘 이뤄지면, 입주기업들은 인력 재교육뿐 아니라 기술 개발과 경영 전략 등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곳의 문을 두드리는 대학은 많은데, 아직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산학연 협력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활발한 산학연 협력이야말로 판교테크노밸리가 아시아판 실리콘밸리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다. 대학들이 이곳 입주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읽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안해준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할 의사가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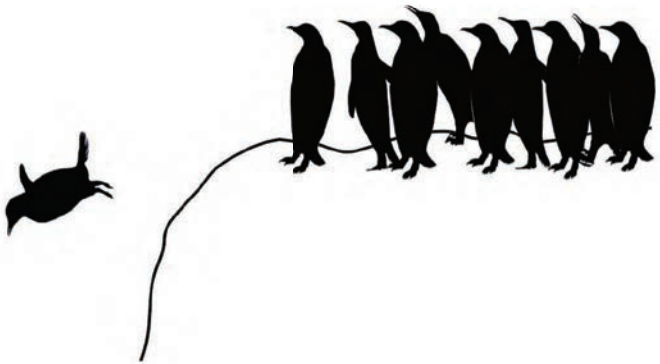


AJOU SOFTWARE CENTERED UNIVERSITY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단

마침내
소프트웨어
시대로-
중심은
사람이다!

유쾌한 초대석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이끄는 First Mover들의 좌담



‘이제 모든 기업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다(All companies are now software companies).’ 2015년 뉴스위크는 10대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며 이렇게 기술했다. 소프트웨어가 정보통신 산업은 물론이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혁신과 경쟁의 중심에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이다. 세계적 흐름과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하고, 학과 단위를 넘어선 전 대학 차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 사업에 담겨 있다. 아주대학교는 2015년 10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선정되어 최장 6년 동안 연평균 20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게 됐다. 40개 대학이 신청해 경합을 벌인 끝에 아주대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를 비롯한 8개 대학이 선정됐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사업을 이끌어갈 류기열 단장(소프트웨어학과 교수)과 소프트웨어학과 강경란 교수, 노병희 교수, 이석원 교수가 한자리에 모였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오늘과 내일

류기열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태계가 잘 조성되지 못했다. 투자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해 투자를 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은 투자를 받지 못하니 기업 운영이 쉽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소프트웨어를 공부한 학생들은 소위 ‘좋은 직장’이라는 곳에 취업하기가 어려웠다. 이제 조금씩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창의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젊은 인재들이 뛰어들기 제일 좋은 분야가 소프트웨어다. 이제 모든 산업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 아이디어가 좋은 젊은 인재,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이다.

노병희 :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은 중소기업이 대다수다. 우수한 학생들이 진입해서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동안은 쉽지 않았다. 산업 자체의 풍토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우리는 ‘소프트웨

어 개발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흔히 3D 직종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래머와는 다르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기획과 비즈니스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다 염두에 두고 소프트웨어를 보는 사람이다.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여러 부문에 적용될 수 있다. 자생력을 가지고 있어 무섭게 확장해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소프트웨어 시장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데,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국내용 소프트웨어’에 주로 집중해왔다. 싸이월드가 국내에서 성공했지만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 않나. 이제 우리도 보다 넓은 안목을 가져야 한다.

이석원 :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무인자동차의 부상을 보라. 지금 정부는 ‘소프트웨어’에 꽂혔다.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수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힘이 모아져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우리로서는 기회다. 이 기회를 잘 살려,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의 내실을 잘 다져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경란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패러다임이 도래했다고들 한다. 현재 대학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은 잘 짜여 있는 편이다. 하지만 대학교육 바깥에 있는 어른들, 앞으로 사회 중심이 될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을 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서, 소프트웨어 전공자 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

개발과 협력을 통한 상생

류기열 :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는 먼저, 소프트웨어 전공 학생들이 ‘실전적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려 한다. 더불어 다른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을 실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타 전공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르칠

“모든 산업에
SW 적용, 젊은인재
성공기회 많아”



류기열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학과/사업단장

“일반인·초중학생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
적극나설 것”



강경란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학과

까 하는 문제는 다른 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고민했다. 그런 고민과 연구를 통해 일괄적인 커리큘럼이 아니라 인문, 사회, 경영, 공학 등 각 계열별 특성을 반영한 소프트웨어 기초과목을 마련했다는 게 우리 사업단의 차별화 포인트다. 이와 더불어 두 가지 연계전공을 새로 마련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연계전공과 ▲인문사회 데이터 분석 연계전공이다. 소프트웨어 관련 심화 교육을 받고 싶은 타 전공 학생, 소프트웨어 융합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소프트웨어 전공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기존에 운영을 해오던 ICT융합전공과 함께 비전공 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소프트웨어 공부를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ICT융합전공을 통해 인문, 자연대 학생들은 수학이나 물리 등의 기초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바로 소프트웨어 전공을 공부할 수 있다. 시행한지 2년 만에 200여 명의 신청자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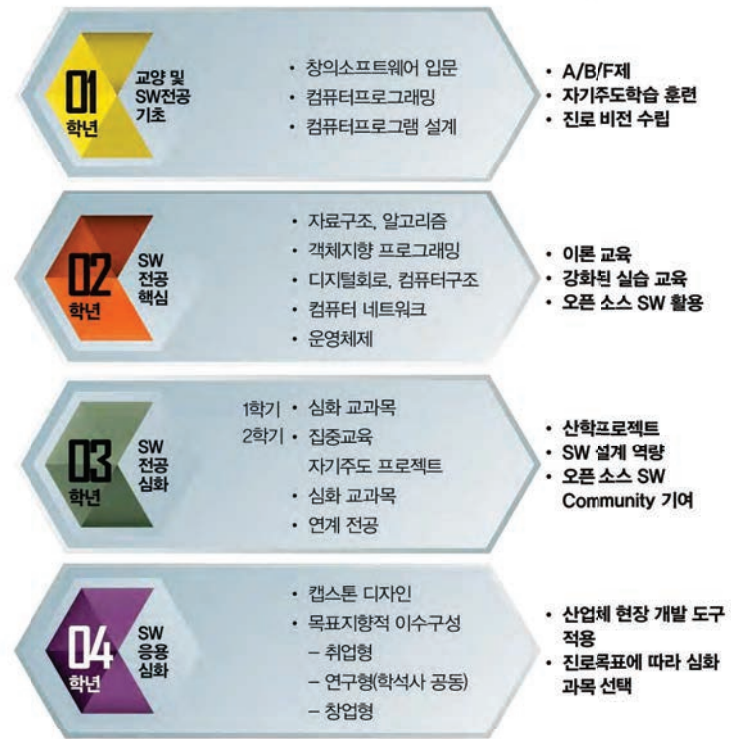
노병희: 전공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1학년 과목에 A/B/F제를 도입한다. C학점 이하로 여겨지는 성적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F학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한 과목 개설, 산학협력 프로젝트 확대 및 학생주도 학습 프로그램 장려 등에 힘을 쏟고 있다. 학생들이 3학년 2학기부터 산업체로 직접 나가서 관심 있는 필드의 전문가와 교류하고 산업 현장의 실제 수요를 구현하도록 장려한다.

이석원: 학생들이 더 큰 세상에 눈을 뜨고 많은 경험을 하도록 도우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학과 차원에서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해외 단기연수와 장기 해외 인턴십을 포함한 여러 국제화 프로그램이 포진하고 있다. 올해 싱가포르에서 우리 학생들이 개발한 과제들을 전시하고, 현지 소프트웨어 전문가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 이외에도 해외 대학과의 교육 및 연구 교류를 이어가려 한다.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꿈을 키우고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강경란: 우리 사업단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 즉 소프트웨어에 대해 일반인과 초·중고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다. 지난 겨울 인근 지역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캠프를 개최했다. 참가자들과 참여 학교들의 반응이 좋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 시행하려고 한다. 교사 대상 교육도 준비 중이다. 오는 2018년부터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정보교사와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일반인 대상 교육도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다. 다행히도 수원시가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호응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반인 대상 교육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대중의 관심이 높은 특정 이슈부터 접근할 것인가 하는 점부터가 고민이다. 일단 대중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빅데이터나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분야를 먼저 다루고자 한다.

류기열: 매우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이러한 역량이 하루 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아주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IT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각종 정부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다수 진행해 왔다. 우리 사업단은 '개방과 협력을 통한 상생'을 기치로 아주대학교 내 다른 학과 뿐 아니라 다른 대학, 기업들과도 'win-win' 하자는 목표로 뛰고 있다. 산학협력 프로젝트도 간헐적이고 일시적인 교류가 아니라, 정말 시스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서로의 필요가 잘 맞아떨어져야 한다. 쉽지 않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기존에 있던 틀을 깨기가 워낙 힘들기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다. 이제 정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다. 전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아주대학교 구성원들도 이번 사업이 소프트웨어 학과나 정보통신대학 만의 것이 아니라, 대학 전체적으로 함께 해나가야 할 과제로 인식해주었으면 한다. 시대적 흐름을 함께 읽고, 이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함께 보자는 이야기다. ㉠

소프트웨어학과 신설 단계 별 전공 역량 심화를 추구하는 교육과정 체계 구축



SW기초교육 SW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지원



지역사회 SW가치 확산 A-StaR(Ajou-Students, Teachers and Residents) 프로그램



“세계무대공략할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이 목표”



노병희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 커진 지금이 기회,
내실 있는 교육에 최선”



이석원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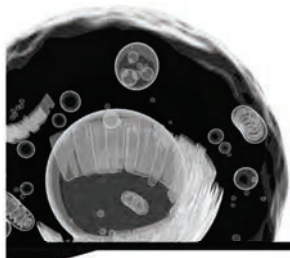
RESEARCH NEWS>>>



*사진의 일부는 참고자료용 이미지입니다.

Microfluidic assessment of mechanical cell damage by extensional stress

김주민 교수팀,
세포 손상 막는 분석 장치 개발
화학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김주민 교수(화학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연구팀이 단백질이나 항체, 호르몬 등을 생산하는 동물세포 배양기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황옥렬 경상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가 공동교신저자로 참여. 제1저자로는 아주대학교 대학원 배영복 학생, 공동 연구자로는 아주대 의과대학 이광 교수가 참여.

김 교수팀이 개발한 기술은 동물세포 배양기의 공기방울 크기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유체장치다. 관련 논문은 영국 왕립 화학회가 발행하는 세계적 학술지인 <랩 온 어 칩(Lab on a Chip)> 2016년 신년호 표지논문으로 실렸다. 이번 개발된 기술은 앞으로 그 효율이 더 높아지면, 인공심장을 비롯한 다양한 의료용 제품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연구성과사업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Prof. Kim's team achieved technical transfer of RIP3 anti-cancer

김유선 교수팀,
'RIP3 바이오마커 이용 항암제' 개발, 기술이전 성공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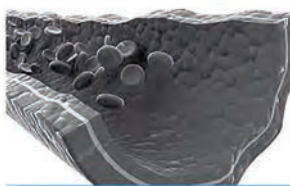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김유선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RIP3 발현 촉진 특허 기술이 동화약품에 기술이전됐다. 기술이전료는 10억3000만원이다.

김 교수팀은 동화약품과 공동으로 항암제 연구·개발을 진행할 계획. 아주대학교의료원과 동화약품은 'RIP3 바이오마커 이용 항암제 개발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

김 교수팀은 세포사멸 프로그램인 네크로토시스를 관장하는 단백질(RIP3)을 활성화함으로써 항암제 반응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 암세포는 생명력이 강해 다량의 항암제 투여와 반복된 방사선 치료로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 김 교수팀은 네크로토시스를 조절하는 RIP3가 암세포에서 현저히 감소한다는 점에 착안, 암세포에 탈메틸화제를 투여해 RIP3 발현력을 높였다. 관련 논문은 네이처 자매지인 <셀 리서치(Cell Research)> 온라인판에 지난 5월 게재된 바 있다.

Visceral fat mass has stronger associations with diabetes

정석화 학생,
당뇨병 위험 예측 논문 발표
의과대학



아주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정석화 학생(2016년 2월 졸업, 지도교수 김대중)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등재 국제 학술지에 실린다.

논문 제목은 '한국인에서 내장비만과 당뇨병 유병률과의 관련성(Visceral fat mass has stronger associations with diabetes and prediabetes than other anthropometric obesity indicators among Korean adults)'

이 논문은 종합 의학 학술지 YMJ(Yonsei Medical Journal) 5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해당 논문은 다양한 비만지표와 당뇨병 및 당뇨병전단계의 유병률과의 관련성을 비교한 연구로 골밀도 측정기(DEXA)를 사용해 측정된 내장비만 지표가 기존의 비만지표에 비해 당뇨병을 동반할 위험이 더 높음을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된 내장비만 지표를 기존 비만지표에 추가적으로 활용한다면 당뇨병 위험 예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논문은 의과대학 '심화선택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이해하고 관심 분야에 대해 보충·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질병예방기술)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이교범 교수, 대한전기학회 학술상



전자공학과 이교범 교수가 지난 12월 한국과학기술학회관에서 진행된 대한전기학회 정기총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교범 교수는 SCI급 저널인 JEET(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 Technology)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도 받았다. 이교범 교수는 "많은 연구 과제를 소수 정예의 인력으로 진행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수고해준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수 교수, 한국유전체학회 학술상



생명과학과 이종수 교수가 '2016년도 한국유전체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학술상 시상식은 지난 2월 제12회 KOGO 동계 심포지엄에서 진행됐다. 이 교수는 한국유전체학회 발간 학술지 <Genomics & Informatics>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 유전체 및 그 응용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매년 <Genomics & Informatics>에 발표된 논문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우수 논문의 저자에게 주어진다. 이종수 교수는 2014년 12월 <Interplay between Epigenetics and Genetics in Cancer>라는 제목의 논문을 이 학술지에 발표했으며 논문은 지난 1년 동안 52회 인용됐다.

윤태영 교수, 한국비교사법학회 우수 논문상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가 한국비교사법학회 '제2회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사법 분야 학자들의 창의적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마련됐다. 한국비교사법학회는 우리나라 사법 분야의 우수 학회 중 하나로, 전공 교수와 법조인 4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윤태영 교수는 '신탁 수탁자의 선관주의 의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이 논문은 한국비교사법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비교사법> 제22권 2호(2015년 5월)에 실렸다. 국내에서 추상적인 선관주의 의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논문은 우리 법제와 영미 법제, 신탁과 위임과의 차이를 분석하면서 신탁수탁자 선관주의 의무의 구체화를 시도했다.

NEWS

EVENT

신분당선 광고중앙(아주대)역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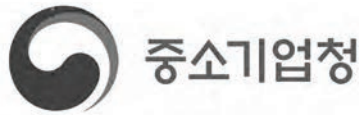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고) 구간이 지난 1월 개통됐다. 광고중앙(아주대)역이 신설되어 아주대학교 구성원과 방문객의 교통 편의가 대폭 증진될 전망이다. 신분당선 광고중앙(아주대)역 개통에 맞춰 학교는 2월 말부터 광고중앙(아주대)역과 학교를 오가는 통근·서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을 기념하는 행사는 1월29일 광고중앙(아주대)역에서 열렸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고 아주대학교 김동연 총장도 함께 자리했다.

한편 김동연 총장은 이에 앞서 '광고중앙(아주대)역' 역명 유치와 관련해 도움을 준 이범재 총동문회회장(전자 73)과 오귀석 동문(전자 78, 매향중학교 교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상민 국회의원(사학 92)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AWARD & SELECTION

연구마을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아주대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16년 연구마을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연간 최대 22개의 기술개발 과제를 중소기업과 공동수행하게 됐다. 사업기간은 최대 2년이며 과제당 연간 1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다.

연구마을 지원사업은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해 중소기업의 연구와 기술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2013년 처음 시작된 이 사업에는 총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아주대를 비롯한 7개 기관이 신규 선정됐다.

사업선정을 주도한 프로젝트지원팀은 아주대 연구마을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 추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청은 아주대-추천기업의 공동 연구 과제를 심사해 최종 참여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AWARD & SELECTION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 주관기관 선정



아주대학교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공동훈련센터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경기 지역 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해 중소기업의 고용률을 높이고 재직자들의 직무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운영비는 매년 최대 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기간은 최장 15년이다. 아주대 산학협력단 기업지원센터는 2016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과정 21개와 채용예정자를 위한 2개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에 참여할 연인원은 6600여명이다.

장준중 기업지원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지역산업과 상생 및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산·학·관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WARD & SELECTION

통일부 '통일교육 선도대학' 선정



아주대가 통일부 주관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통일부는 대학 통일교육 모델 개발과 통일 관련 교과목 확대 등 대학사회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을 마련했다.

아주대와 함께 서울대, 숭실대, 충남대, 경남대, 광주교육대학 6개 대학이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에는 전국 4년제 대학 31개교가 지원했다. 최종 선발된 6개 대학에는 총 18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 선정을 바탕으로 아주대는 '실사구시형 통일 인재 양성'을 목표로 '아주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양 및 전공 과목을 개편·강화하고 체험형 통일 교육을 마련할 계획. 통일 관련 봉사 및 연구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대학생과 북한 이탈 청소년의 교류를 확대하는 프로그램 역시 준비 중이다.

AWARD & SELECTION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통일 환경 조성에 앞장

아주대가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한 '2016년 지역통일교육센터' 공모에서 경기남부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됐다. 이에 김동연 총장이 통일교육위원 남부협의회 회장을 맡아 통일 교육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남부통일센터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통일강좌 ▲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순회강좌 ▲통일체험 학습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일상에서 쉽게 통일 관련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 포럼,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지역 여론을 주도, 통일 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아주대는 통일부가 주관하는 통일교육 선도대학과 지역통일 교육센터에 동시에 선정된 유일한 기관이다.

EVENT

'월드 옥타-아주대 글로벌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김동연 총장과 최경희 산학부총장을 비롯한 아주대학교 주요 관계자들이 지난 2월 '월드 옥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World-OKTA Global Business Center)' 개소식에 참가해 양 측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측은 이번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개소를 계기로 '월드 옥타-아주대 글로벌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운영키로 합의했다. 아카데미에서는 국내외 청년 창업 지원, 해외 동포 기업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주대학교는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인턴십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노하우를 적극 활용, 월드 옥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월드 옥타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기업인들의 경제·무역단체로 지난 1981년 설립됐다.

PEOPLE

간호대·약대 국가시험 100% 합격



간호대학과 약학대학이 지난 1월 시행된 국가시험에서 2년 연속 전원 합격의 쾌거를 이뤄냈다.

제56회 간호사 국가시험에는 아주대 간호대 학생 65명이 응시, 전원 합격했다. 유문숙 간호대 학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시험에서 우리 학생 전원이 합격해 무척 기쁘다"며 "학생들이 이론과 실습 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교수들의 노고와 학생들의 노력이 오늘의 결실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주대 간호대학은 전공 교과목 외에 의료현장 적응실습, 전공별 심화실습,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임교수 실습 책임제, 인성교육 함양, 단임반 및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해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의료 현장에서 전문인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한편 약학대학 학생 31명 역시 1월 시행된 제67회 국가고시에 전원 합격했다.

AWARD & SELECTION

노명우 교수, 교육우수교수 대상



2015학년도 교육 우수 교수 시상식이 지난 2월 열린 교수 워크숍에서 진행됐다.

노명우(사회학과) 교수가 대상을 차지했다. 우수상은 장우진(미디어), 이상운(물리), 이종욱(전자공학), 최명원(경영), 이진희(다산학부대학) 교수가 수상했다. 교육 우수 교수는 우수 강의의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평가 점수와 학장 추천, 선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수상자가 결정된다. 교육 방법의 혁신성과 교육 발전에 대한 기여, 교육에 대한 열정이 선정 기준이다. 노명우 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다함께 텍스트를 읽고 그에 대해 함께 말하고 쓰는 과정으로 구성된 <사회학적 상상력과 고전읽기>라는 수업을 시작하며 우려가 많았다"며 "하지만 함께 읽고 토론하고 말하고 쓰는 수업에서 학생들은 생각보다 잘해주었고 수업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오수기·주동표·최태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수기(물리학과) 교수, 주동표(화학공학과) 교수, 최태영(전자공학) 교수가 정년을 맞이 지난 2월 퇴임했다.

주동표 교수는 1979년, 최태영 교수와 오수기 교수는 1983년에 임용됐다. 세 사람은 정부로부터 그간의 공을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주동표 교수는 지난 36년간 화학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분리공정과 관련한 우수 연구 업적을 다수 남겼고 공과대학의 체계적 교육과정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오수기 교수는 물리학과 신설에 참여, 학과 발전의 초석을 만들었다. 또 자연과학대학 학장과 한불기술협력센터 소장, 불어협력센터 센터장 등을 수행하며 학교 발전에 기여했다. 최태영 교수는 정보통신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활발한 교내외 활동을 통해 학교와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NEWS

EVENT

경기창조경제협의회 출범,
김동연 총장·경기도지사 공동의장

경기지역의 창조경제 생태계 발전과 확산을 지원하게 될 민관 협력 기구인 '경기창조경제협의회'가 판교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공식 출범했다.

아주대 김동연 총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동의장을 맡은 협의회는 임덕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비롯한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기업 지원 기관과 상공회의소, 여성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 벤처기업 대표 등 각계 전문가가 24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17년 12월까지 2년이다.

창조경제 관련 유관 기관장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대거 참여한 협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경기도의 창조경제 지원시책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타트업 육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래성 우수논문상' 시상식

AWARD & SELECTION



'강래성 우수논문상' 시상식이 3월14일 열렸다. 이 상은 강래성 세원EPC 회장의 후원을 바탕으로 우수 논문을 발표한 대학원생들의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의 영광은 ▲강병동(기계공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엄명환(전자공학과 박사과정) ▲박천희(행정학과 박사과정) ▲이창희(경영학과 박사과정) 4명에게 돌아갔다. 수상자들에게는 강래성 회장의 기부로 조성된 장학금 250만원씩이 주어졌다.

강래원 세원EPC 회장은 지난 2013년 아주대에 1억원을 기탁했고 이에 더해 매년 우수 성과 대학원생을 위해 500만원씩을 기부해오고 있다. 강회장의 기부는 그가 앞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인연으로 시작됐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드론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

KRF 한국농어촌공사

아주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3월28일 '농어업 및 농어촌 분야 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농어업·농어촌분야 드론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필요한 보유자산의 공동이용 및 기술·정보 공유 ▲학술연구, 세미나, 심포지엄 등 R&D 분야 기술교류 활동 등에 협력키로 했다. 드론개발시험센터를 설립해 드론 연구개발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상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아주대의 기술력과 한국농어촌공사의 노하우를 결합해 다양한 드론 관련 기술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PEOPLE

2016학년도 1학기 신입 교원
28명 임용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아주 가족이 된 교수들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2월 진행됐다.

올 1학기부터 아주대에 합류하는 신입 교원은 총 28명으로 본교 13명, 의료원 15명이다. 신입 교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본교>

강대식(조교수,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고체역학)
최영만(조교수,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고체역학)
홍승남(조교수, 전자공학과, 통신공학)
진효언(조교수, 약학과, 생물의약품학)
정재성(조교수,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에너지경제학·에너지공학)
이환용(부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정보컴퓨터공학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남양호(부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
김강석(부교수·연구중점교수/사이버보안학과, 유비쿼터스협업 소프트웨어보안)

신효정(조교수·교육중점교수/교육대학원, 교육상담 및 학교심리)

Ashley Gail Massey(조교수·교육중점교수/경영학과, 경영일반)

김주희(조교수·교육중점교수/약학과, 임상약학)

서주영(조교수·교육중점교수/다산학부대학, SW교육)

신승훈(조교수·교육중점교수/다산학부대학, SW교육)

<의료원>

김영호(교수·치과학교실, 교정학)

양시영(조교수·약리학교실, 면역학)

장재락(조교수·뇌과학과, 뇌질환)

윤덕용(조교수·의료정보학과, 의료정보학)

모정순(조교수·유전체불안정성 제어연구센터, 분자세포생물학)

김순선(조교수·소화기내과학교실, 간)

윤정환(조교수·신경과학교실, 운동질환)

이수형(조교수·외과학교실, 이식혈관외과학)

공태욱(조교수·산부인과학교실, 부인중양학)

장정훈(조교수·이비인후과학교실, 이과학)

추철호(조교수·비뇨기과학교실, 비뇨기중양학)

김지은(조교수·마취통증의학교실, 로봇수술·폐수술마취)

박민정(조교수·영상의학교실, 복부영상학)

고영화(조교수·병리학교실, 폐병리학·내분비병리학)

함석진(조교수·흉부외과학교실, 흉부외과학)

EVENT

1학기 첫 '브라운백 미팅' 열려



열다섯 번째 '브라운백 미팅(Brown Bag Meeting)'이 3월15일 열렸다.

사전 신청을 통해 참석한 18명의 재학생들은 김동연 총장과 샌드위치, 음료수를 함께 하며 2시간 여 이야기를 나눴다. 학생들은 김 총장에게 ▲과대학기제·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 ▲새로운 장학제도를 비롯한 학교 주요 프로그램들과 ▲경험했던 시련과 극복 방법 ▲독서법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동연 총장은 "아주 좋고 편할 때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에 스스로를 내던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브라운 백 미팅'은 매월 첫 번째·세 번째 수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격주로 진행된다.

EVENT

'NEXT경기 전문가 양성과정' 입학식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과 경기도가 개설한 'NEXT경기 전문가 양성과정'의 첫 입학식이 3월2일 열렸다.

입학식에는 'NEXT경기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하는 20명의 공무원과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주대에서는 김동연 총장과 김홍식 공공정책대학원장 등이 자리했다. 'NEXT경기 전문가 양성과정'에는 지역 거버넌스 전공(행정학 석사)과 지역 경제 전공(경제학 석사)에 각 10명씩 20명의 공무원이 참여한다. 교육 기간은 2018년 2월까지 총 2년, 4학기다.

EVENT

수원시 핵심리더 양성과정
수료식 및 입학식

첫 번째 '2015 수원시 핵심리더 양성과정' 수료식이 지난 12월 아주대 종합관에서 진행됐다. 수료식에는 교육과정에 참여한 수료생 30명과 염태영 수원시장, 박순영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핵심리더 양성과정'은 2015년부터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이 위탁을 맡아 교육 전반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는 수원시 중견 공무원 30명이 참여했고 2월부터 총 10개월 간 진행됐다.

한편 두 번째 '수원시 핵심리더 양성과정' 입학식은 올 2월 율곡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선발된 수원시 중견 공무원들은 앞으로 10개월 동안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AWARD & SELECTION

기계공학과 유승범 학생, ‘UN 영어 스피치 대회’ 우승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유승범 학생이 UN 창립 70주년을 맞아 개최된 ‘UN의 날 영어 스피치 대회’ 대학생 부문에서 우승했다. 이 대회는 UN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가 주최했다. 유승범 학생은 <청소년이 진정 더 멋진 세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주제로 연설해 최고상인 ‘반기문상’을 받았다. 연설에서 그는 “더 멋진 미래를 위해서는 지구촌이 당면한 문제를 책이 아닌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총장 BOOK 릴레이

한편 김동연 총장과 학생·교직원 이 책을 돌려 읽는 모임인 ‘북 릴레이’도 이어진다. ‘북 릴레이’는 김 총장이 먼저 책을 읽고 한줄서평을 단 뒤 원하는 사람이 돌려 읽는 모임. 올 1학기에는 <공부의 배신-왜 하버드생은 바보가 되었나>, <강자의 조건>,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협력의 진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5권이 ‘북 릴레이’ 도서로 선정됐다.



EVENT

中 북경이공대·상해교통대와 MOU 체결



아주대가 중국 북경이공대·상해교통대와 각각 MOU를 맺었다. 북경이공대학은 1940년 중국공산당이 건립한 중국 최초의 이공계 대학이다. 북경이공대학과의 이번 MOU에는 교환학생 파견과 교원 교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동연 총장은 MOU 체결식에서 양교 간 복수학위제 운영을 제안했고 북경이공대 역시 적극적으로 화답, 복수학위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상해교통대는 1896년 설립된 대학으로 2015년 QS 세계 대학평가에서 중국 내 5위, 아시아 24위를 차지한 명문대학이다. 아주대는 상해교통대와 2007년 교류·협력에 관한 MOU를 맺은 바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교 간 협력을 더욱 확대 및 본격화하기 위해 ▲인바운드 AFTER YOU 프로그램 관련 MOU ▲아주대 통일연구소-상해교통대 통일연구소 MOU 2건을 추가로 체결했다.

EVENT

YTN과 업무 협약 체결



아주대학교와 YTN이 ‘콘텐츠 교류와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상호발전을 위한 각종 콘텐츠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YTN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할인 쇼핑몰 ‘교육할인스토어’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할인스토어는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쇼핑몰로 대학생과 교직원 이용할 경우 노트북, 생활필수품 등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수익금 중 일부는 발전기금으로 학교에 환원된다. 협약식에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과 조준희 YTN 사장이 참석했다.

EVENT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과 R&D교육 업무협약



아주대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과 대학 R&D 교육 운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R&D 교육 시행에 필요한 업무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교수 인력, 교육시설, 교육 콘텐츠 등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아주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대 R&D 맞춤형 교육’이 3월부터 실시된다. 교육 과정에는 연구윤리, 연구노트, 영어연구 및 논문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김동연 총장은 “KIRD가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통해 미래 과학기술을 선도할 우리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연구개발 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용섭 원장도 “모범적인 업무제휴의 사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아주대와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VENT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 “AFTER YOU” 기부도



아주대학교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산학협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2월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과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을 위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아주대 교수나 학생 창업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산학협력 가족회사 등에 게 보증 지원과 경영지도 자문, 각종 금융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협약식에서 아주대에 “AFTER YOU 프로그램” 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 약정했다.

EVENT

키사이트, 16억 상당 반도체 설계 SW 기증



전자 계측기 전문 기업 키사이트코리아가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에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2세트를 기증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디바이스 모델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 총 16억원 상당이다. 이번 소프트웨어 기증으로 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과 학생들은 반도체 공정의 전 과정을 실습·체험 할 수 있게 됐다. 윤덕권 키사이트코리아 대표이사는 “소프트웨어 기증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능력 향상 뿐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설계 분야 발전에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아주대학교와 지속적인 협력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VENT

2016학년도 입학식 열려 ‘도전과배려’ 다짐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입학식이 2월23일 체육관에서 열렸다. 입학식은 임석철 교무처장의 학사보고로 시작해 김동연 총장의 입학 허가 선언, 신입생 대표 입학선서, 총장 입학식사, 주한 프랑스 대사 축하 순으로 이어졌다. 신입생 2056명을 대표해 문성진·이은경 학생이 입학선서를 했다. 김동연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변화를 선도하는 대학 아주대학교의 구성원이 된 여러분에게 ‘도전과 배려’의 가치를 강조하고 싶다”며 “여러분이 대학 생활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식에 함께 한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 프랑스 대사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아주대학교에 입학한 여러분에게 축하 인사를 보낸다”며 “대학생활을 충분히 즐기라”고 조언했다.

EVENT

2015학년도 학위수여식, 2900여명에 학위수여



2015학년도 학위수여식이 2월22일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630명, 석사 234명, 박사 87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사 1630명 중 복수학위자는 215명, 부전공 이수자 93명이다. 지난 2015학년 8월자로 학위를 받은 학사는 810명, 석사 155명, 박사 58명으로 2015학년도 학위 취득 총인원은 학사 2440명, 석사 389명, 박사 160명이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대우학원 추호석 이사장과 김동연 총장, 최경희 산학부총장, 각 대학 학장들과 이범재 총동문회장이 함께 자리했다. 졸업생 답사는 전체 수석 졸업자인 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과 이용복 학생이 낭독했다. 김동연 총장은 식사를 통해 “실패와 시행착오가 ‘상처’로만 남지는 않을 것이기에 도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학교는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뚝 설 때까지 ‘공동책임’의 정신으로 함께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SPRING



CHIEF EDITOR brand strategy dept. moc.
graduate school of
public affairs visiting professor

EDITORS brand strategy dept.
kkpd and partners co., LTD.

PHOTOGRAPHER brand strategy dept.
mechanical engineering_junior
transportation system engineering_senior

ART brand strategy dept.
kkpd and partners co., LTD.

PROCEEDING ASST. ajou univ.
culture and contents_senior
digital media_senior
digital media_junior

PRINT MANAGER alask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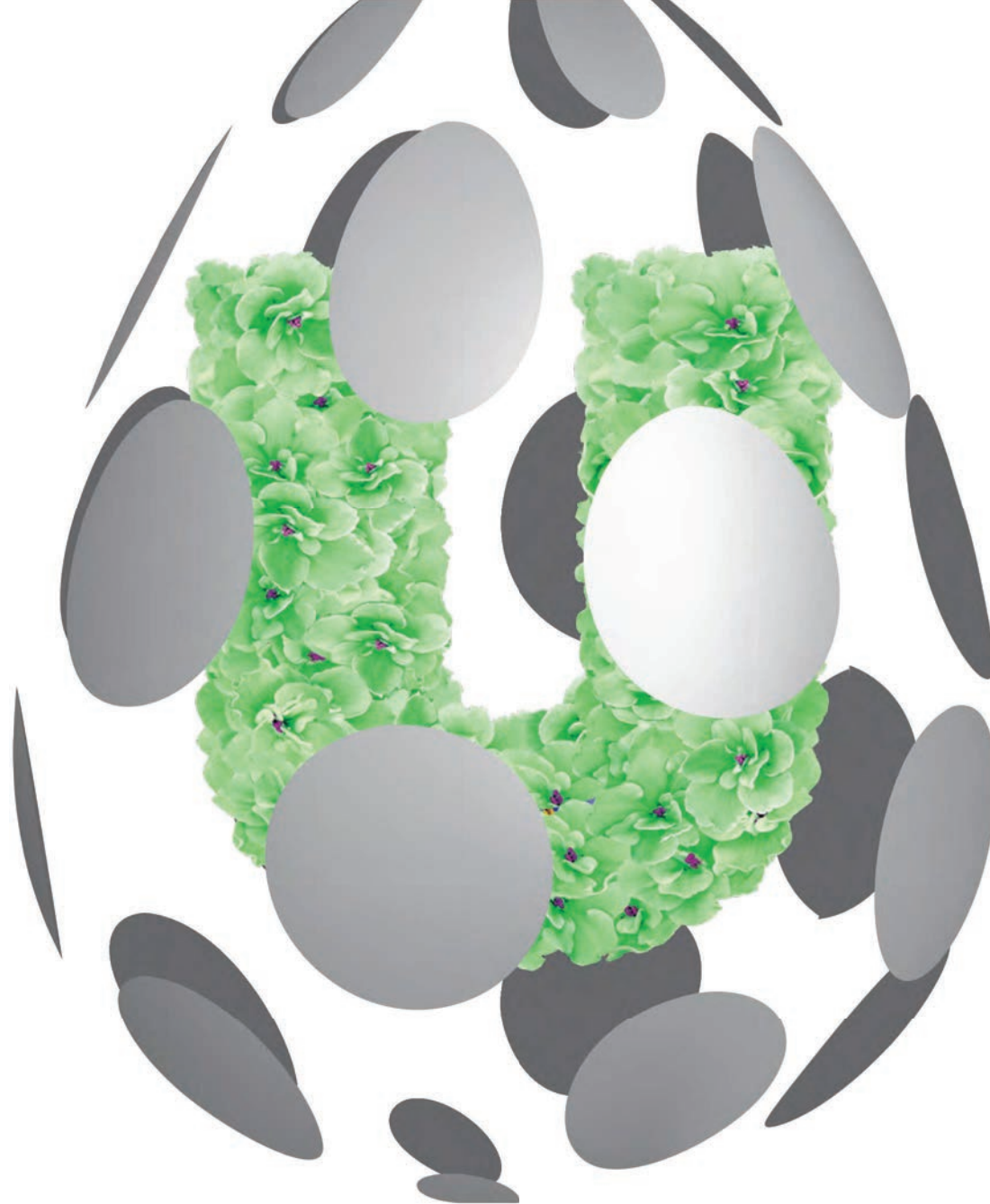
SUPERVISOR brand strategy dept.

PAPER Greenlight
그린라이트는 재생 원료를 배합하여 탄생한 친환경용지입니다.



사회인사의 아주사랑... 감사드립니다. 학교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illegible]



B E R T O N B R A L E Y

최 고 의 시 는 아 직 쓰 여 지 지 않 았 다
최 고 의 집 은 아 직 지 어 지 지 않 았 다
최 고 봉 은 아 직 정 복 되 지 않 았 다
최 대 의 강 에 아 직 다 리 는 놓 여 지 지 않 았 다

그 러 므 로 두 려 워 말 고 초 조 해 하 지 도 말 라
약 한 마 음 을 먹 지 도 말 라
기 회 는 이 제 막 도 래 하 고 있 다

최 고 의 일 은 아 직 시 작 되 지 않 았 다
최 고 의 작 품 은 아 직 완 성 되 지 않 았 다

‘최고의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AU
1973

아주대학교가 유쾌한 반란을 시작합니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아주대학교 제1호 수석인 3316호
AJOU UNIVERSITY

AJOU UNIVERSITY QUARTERLY MAGAZINE 16 03 04 05 RENEWAL Vol.3

AJOUINSIGHT.

<아주인사이트> 2016(4349) 봄호 전 '아주대학교사람들'과 함께 통권 15호.